

2015년 6월호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알찬 직업교육으로 더 넓은 세계 품는다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전형요소 이해

2015 세계교육포럼 성황



Contents

현장 이야기

- 02 **꿈이 영그는 현장** 경기 포천여자중학교
- 06 **삶과 교육** 함필규 염작초 교장
- 10 **이런 수업 어때요_초등** 곽지순 교사의 북아트 활용 수업
- 14 **이런 수업 어때요_중등** 이효경 교사의 과학마술 수업
- 18 **에너지충전소**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Dream for Future' 외
- 20 **화제의 교사** 김영환 낙동중 교사

정책 이야기

기획 알찬 직업교육으로 더 넓은 세계 품는다

- 24 선취업 후진학은 교육개혁 출발점
- 26 학교와 일터 오가며 배우니 기술력 쑥쑥
- 28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 지원 팍팍
- 30 영 마이스터의 요람으로 우뚝
- 32 숫자와 그래프로 보는 직업교육
- 34 **초점** 2015 세계교육포럼 성황
- 38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42 **정책해설**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전형요소 이해



02 | 06



정보 이야기

교육논단 공부가 새로워지는 프로젝트 수업

- 48 왜, 프로젝트 수업인가
- 51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 54 학급경영노트 자투리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
- 56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책 읽는 아이 키우는 영국 독서교육의 힘
- 58 정책카툰 안전체험학교 운영
- 59 명예기자 리포트 스포츠 이벤트의 달인, 김종우 선생님 외
- 64 시·도교육청은 지금 부산/대구/울산/대전/강원/경남/충남/제주/세종/충북

교양 이야기

- 68 학교 밖 학교 푸른 자연이 손짓하는 유월, 생태체험 떠나볼까
- 70 자녀교육 Q&A 아이와의 언쟁, 피해야 할까요?
- 72 생각나눔 소통을 위한 비밀병기
- 74 일상의 심포 일상을 벗어나는 쉬운 길, 오이도
- 76 뒀다! 자유학기제 “학생부에 ‘자유학기활동’ 알차게 남기세요”
- 77 뉴스브리핑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 외
- 80 행복게시판 **행복한교육** 무료 구독 신청 &五指만담



COVER STORY

산학일체형 특성화고인 시화공업고등학교(교장 구자도) 도제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수직제어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 학생들은 매주 일터와 학교를 오가며 현장 실무를 익히고 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5



34



경기 포천여자중학교

전문직업인과 실시간 진로멘토링... 원격영상 수업으로 지역한계 넘는다

농산어촌의 학생들이 멘토를 만나기 위해 도시지역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포천여중은 올해 2년째 원격으로 진로멘토링 수업을 진행 중이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직업의 멘토를 원격으로 만나 강연을 듣고 질문하면서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꿈 버튼'

포천여중(교장 강왕규)의 진로진학상담실에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꿈 많은 10대 소녀들의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온 학교로 울려 퍼진다.

점심시간, 서둘러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누가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로진학상담실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복도 한 켠에 놓인 디지털피아노를 단짝친구와 나란히 앉아 연주하는 학생들이 카메라를 대자 부끄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한쪽에서는 기타연주를 하는 친구 옆에 편안한 자세로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자연스레 눈을 감고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지그시 기타 선율에 빠져본다.

복도를 빼곡하게 수놓은 직업정보판을 살펴보는 학생들이 진지하다. 자신의 꿈을 그린 마트로시카(러시아의 전통 인형)를 들고 누구는 유치원 선생님을, 누구는 군인을, 누구는 가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렇듯 이곳 진로진학상담실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잠시후, 진로진학상담실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꿈 버튼 만들기' 수업이 이어졌다. 평소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두었던 아이들은 동그란 종이에 자신의 꿈을 담아낸다.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최혜진 학생은 짧은 시간에 4장의 스케치를 완성했다. 야외 풍경을 표현한 스케치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담은 스케치를 비교해 보다가 꿈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선택했다. 완성된 '꿈 버튼'은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미술선생님을 향한 구체적인 꿈을 꿔 나갈 것이다.

가수가 꿈이라는 이예인 학생은 보컬, 댄스라는 영문자를 이용해 자신의 꿈을 그렸다. 피아노 건반을 물결무늬로 꾸며 가수를 향한 꿈을 표현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박은서 학생도 자신만의 꿈 버튼을 만들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멋진 캐릭터로 표현한 아이, 사진작가의 꿈을 키우는 아이 등등 각자 자신의 꿈을 그린다.

교육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이란?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많은 초·중·고 학생들도 도시학생처럼 다양한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적 여건상 체험기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진로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 한 학교당 총 10회의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 '15년에는 첨단기술, 글로벌화, 녹색직업, 사회적기업, 고령화관련, 신소비트랜드,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멘토를 섭외하여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군 소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이렇게 해보세요~

- 1 직업 선택형 멘토링 수업: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매 차시마다 새로운 직업의 멘토를 선택하여 수업을 이수
ex) 수의사, 플로리스트, 성우 등 멘토 소개, 직업이해 및 멘토·학생 간 질의응답 진행
- 2 체험·실습형 멘토링 수업: 특정 직업에 대한 직무 체험 및 실습을 목적으로 해당 직업인 멘토가 구성한 2~3차시 내외의 수업을 이수
ex) (1차시) 광고기획자, 광고의 직업 종류와 직업유형
(2차시) 광고 아이디어션 회의
(3차시) 나만의 광고-폴리주 작업

꿈꾸는 세상에 지역한계는 없다

포천여중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이란 학생들이 멘토를 만나기 위해 도시지역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13년도부터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을 시작했으며, 첫째 57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08개교, 올해에는 1,036개교를 운영 중이다. 포천여중도 지난해 시작해 올해 2년차를 맞았다.

포천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4,000~5,000여 개의 중



02

소기업들이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다문화 가정도 다수 있다. 지역적으로 교육환경은 열악한 편이지만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열의는 적지 않다. 나만열 진로교사가 지난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신청한 계기도 바로 이런 지역적인 열세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은 각 학교에서 홈페이지 (<http://mentor.career.go.kr>)를 통해 학교급별에 따른 맞춤형 시간표를 보고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 원하는 멘토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포천여중은 지난해 3학년 8개 반을 대상으로 전시기획자, 독립큐레이터, 캘리그래퍼, 외환딜러, 푸드타터, 파티쉐, 슈퍼모델, 아쿠아리스트에 대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강왕규 교장은 “중학교 단계는 진로탐색이 중요한 시기다. 아이들이 원격영상 수업을 통해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직업인과 만나 자기 진로를 탐색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의 직업과 일의 가치를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생겨날 직업에 대한 비전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03

화상으로 플로리스트와 만나다

지난 4월에는 플로리스트인 이현경 멘토와 함께 꽃, 식물, 화초 등의 화훼류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에 대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은 진로교사가 주제를 정하고 시간을 확정하여 수업을 예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전학습의 일환으로 관련 동영상을 활용하여 수업이 이뤄지는 데 이때 멘토와 멘토의 직업에 대해 미리 알게 된다.

본수업은 멘토와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다. 이현경 멘토를 통해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플로리스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일하면서 겪은 소중한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등을 들으며 직업을 이해해 나간다.

“보통 원격영상 수업에 3~5개 학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차시 수업에 4군테의 학교가 원격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모에 관심 많은 여중생 아이들이잖아요.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고, 멘토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타학교에도 생중계되니 호기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나 교사는 매 차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말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포천여중 나만열 진로교사와 3학년 학생들의
'꿈 버튼 만들기' 수업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04



05

그날그날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에서는 본수업도 중요하지만 사전학습과 사후활동이 무척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원격수업이다 보니 자칫 학습 분위기가 산만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민 학생은 “플로리스트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이런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도 쉽지 않잖아요.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을 알아가는 과정이 무척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유진영 학생은 “화상수업이라는 방식이 새로워서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직업을 화상을 통해 접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설명한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은 한 학교당 최대 10차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포천여중은 올 연말까지 꾸준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진로시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외에도 포천여중은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불어넣는다. 4월 경에는 진로캠프를 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제과제빵 등의 진로체험을 진행하였다. 진로탐색을 위한 축제의 시간도 가졌다. 진로와 관련하여 글쓰기 대회, 진로송 UCC 대회, 진로만화·직업정보판 만들기 등을 진

02 원격으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은 지역적 열세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 포천여중 진로진학상담실에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이 한창이다.

03 학생들이 관심분야를 찾아 정리해 놓은 '직업정보판'들이 진로진학상담실 복도에 가득 메우고 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진로를 탐색하는 색다른 공간이다.

04 05 포천여중 학생들의 꿈이 담긴 작품들

행했다. 학생들의 작품은 진로진학상담실 복도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진로탐색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년째 학생들의 작품이 쌓이면서 진로진학상담실과 복도에는 학생들이 관심분야를 찾아 정리해본 직업정보판으로 가득하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진로를 탐색하는 색다른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인근지역의 학교 7곳을 연계하여 직업캠프 거점학교를 두 차례 운영하기도 했다. 미술, 제과제빵, 바리스타, 미용, 로봇만들기, 과학실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끌어 냈다.

나만열 교사는 말한다.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공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요.” ㉠



함필규 염작초 교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

함필규 교장은 944명의 제자들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산다. 교감 발령 전까지 담임했던 아이들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한 권의 공책에 기록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고자 다짐할 때 이따금 꺼내본다. 모두 다 내 아이이기에, 소외된 아이가 없도록 교육을 펼치고 있는 함 교장을 만나봤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함필규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빛바랜 노트 한 권.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오른쪽 귀퉁이는 헤지고 닳았다. 첫 장을 넘기자 1983년의 아이들이 있다. 함필규(53) 염작초 교장이 교단에 선 첫날, 환하게 웃던 당진 정미초 4학년 2반 아이들 이름이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그가 만난 제자들이 944명. 함 교장이 2009년 9월 교감 발령 전까지 담임했던 아이들 이름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학생이 준 쪽지와 학부모가 보낸 편지도 중간 중간 곱게 접혀 한 페이지를 이루고 있다.

“가끔 제자들의 명부와 사진을 정리한 공책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나를 이끌어 준 많은 이들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944명의 제자들도 제чен 스승이요, 아침마다 만나는 해맑은 학생들도 저의 스승입니다.”

만나는 이 모두가 스승이기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삶 가는 곳마다 스승이 있다는 함 교장은 제자들이야말로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말한다.

교육은 마라톤이다

함 교장은 지금도 옛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월요일 아침 등교하자마자 품에 안기며 “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던 1학년 재능이, 수학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3학년 지수,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5학년 웅이(가명)…. 웅이는 함 교장이 품안에 끼고 방과 후 내내 수학을 가르쳤던 아이인데, 주말마다 동네 빈 병을 모아 판 돈으로 스승의 날 손수건과 꽃을 건넸던 애뜻한 제자다. 944명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보니 떠오르는 제자들이 모두 조금은 더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했던 아이들이다.

“소외된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지요.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재는 원래 그래요’라는 말을 듣던 학생이 지속적인 관심



02

01 '교실 복도 문턱에 아이와 함께 걸터앉은 함 교장. 그는 권위를 세우기보다 아이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문턱' 없는 교장이 되고자 한다.

02 함 교장이 교단에 선 1983년부터 기록한 제자 명부 노트. 노트 맨 앞장에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사랑하는 944명 제자들'이란 문구가 쓰여있다.

과 칭찬으로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달라졌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교육이 100미터 혹은 200미터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8시 45분이면 연필을 들고 교무실로 오는 아이가 있었다. 3학년 진영(가명)이는 한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던 아이였다. 1학년 읽기 책도 더듬더듬 읽던 진영이를 불러 함 교장은 매일 아침 20분, 점심시간 20분을 쪼개 한글을 가르쳤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자 진영이는 동화책을 술술 읽어 내려갔다. 2학년 준수(가명)도 조금씩 따라온다. 두 아이는 전교생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을 읽지 못해 학교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던 아이였다. 시간이 흘러 '한글 공부'를 졸업한 두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읽고 해결하게 됐다. 함 교장은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기초학력이 부실하면 아이가 12년간 학교에서 수업시간마다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디어 뱅크'로 불리는 교장선생님

염작초는 지난해 교육부 선정 제12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서 최우수학교로 뽑혔다. 지난해 초 함 교장이 부임한 후 1년만의 일이다. 교장으로는 첫 발령지인 이

곳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뿌듯함도 배가 됐다.

남다른 준비를 한 건 아니었다. 지난 1년간의 교육활동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자 훌륭한 교육과정 보고서가 된 것이다. 굳이 비결을 꼽자면 ‘행복한 작은 학교를 꿈꾸는 CEO’로 이름 붙인 자료집 덕분일까. 자료집에는 함 교장이 교사 시절부터 펼치고 싶은 교육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크랩 한 자료들과 기사들이 모두 모여져 있다. 폐교 위기 학교가 교육 기적을 일군 사례부터 교육경영 에세이까지 다양하다. ‘아이디어뱅크’로 불린 데는 그만큼 공부하고 오랜 시간 고민한 그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

엽작초 교육활동에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아차사고 발굴카드’는 학생 스스로 안전위해에 관심을 갖고 찾도록 한 제도다. 나사가 튀어나왔다는 등 아이들은 교내 곳곳에서 사소한 것들도 찾아내면서 학교는 더욱 안전해졌다.

함 교장은 훈화시간도 남다르게 바꿨다. 감동 동영상 찾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대화를 나누는 식이다. 강요보다는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자는 신념으로 교육활동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식사시간 잔반을 남기자 혼내기보다는 직접 캠코더로 찍어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다음날부터 잔반이 확 줄었다.

매일 학부모에게는 학교생활 안내장을 보내고 바라는 점과 부탁할 점을 받고 있다. 소식지에는 한 달간 독서 상황 등 담임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 보내주는 데, 함 교장은 전교생 85명의 소식지를 일일이 다 읽어보고 직접 챙기고 있다.

제자를 키우는 말, 칭찬

그는 아이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한다. 운동장 놀이기구도 밀어주고, 쉬는 시간에도 수시로 돌아보고, 점심시간 밥 먹는 모습도 살핀다.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이



라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라고 말할 만큼 달라졌다.

그는 다 부족해보여도 잘하는 한 가지를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한다. 급식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칭찬 포스트잇을 붙이는 게시판이 있다. 칭찬 선물달기를 통해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뿐 아니라 칭찬 선물을 가장 많이 단 학생, 칭찬받은 교사도 전교생 앞에서 박수를 받는다. 칭찬에 소외되는 아이는 없다. 각종 대회에서 탈락한 아이들이나 임원 선거에서 떨어진 아이들도 일부러 불러 격려하고 칭찬한다.

교장실 문 앞에는 이해인 수녀의 시 ‘나를 키우는 말’이 액자로 걸려 있다. 함 교장이 오가며 매일 되새기는 말이기도 하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 나도 정말 행복해서 /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중략]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 나는 말하면서 / 다시 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하고 선생님에게 먼저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선생님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더 다독여 주라고 얘기를 하곤 해요. 아이들과의 대화도 연습이 필요하지요.”

30년간 가르쳤던 노하우를 후배 교사들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교장이 직접 수업시연을 하고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는 수업에서 20분 이상 교사가 혼

03 학교 건물 뒤 유희 땅에 조성된 텃밭. 함 교장은 매일 매일 아이들과 함께 작물을 심고 가꾸며 대화를 나눈다.

04 급식소 앞에 세워 둔 선물 게시판. 지난해 칭찬 선물에 이어 올해는 감사 선물을 달기를 시작했다.

05 아이들이 함 교장에게 선물한 그림. ‘사랑해요.’라는 글귀에서 함 교장을 대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교장실에 오갈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문 앞에 걸에 놓았다.

06 학교에 오면 학생은 물론 전 교직원이 명찰을 목에 건다. 6학년 명찰에는 Helper라고 쓰여 있는데, Helper는 매일 아침 저학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점심시간에는 급식 지도를 도맡아 한다.

07 함 교장은 사소한 일도 교장실로 불러 칭찬한다. 상품으로 초콜릿을 주는 함 교장

08 매월 학부모에게 전하는 학교생활 안내. 담임교사가 한 달간 관찰한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자 강의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교사가 아이들 사이로 속 들어가 확인하고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휴대폰 메모장은 그날 할 일로 빼곡히 차 있다. 길을 지나가더라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문구나 장면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활용한다.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相手). 살다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고수를 만난다는 좌우명을 지니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사람, 함.필.규 교장이다. ㉠

곽지순 교사의 북아트 활용 수업

“배우고 느낀 내용 ‘작은 책’으로 만들자 창의성 솟고 학습효과 커져요”

곽지순(45) 인천소양초 교사는 동료교사들과 아이들에게 ‘북아트 선생님’으로 통한다. 북아트란 다양한 종이접기를 이용해 페이지를 만들어 내용을 구성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북아트, 수업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아트를 도입하고 있는 곽지순 교사의 수업을 들여다봤다.

넌 아직까지 보이질 않는구나./ 존재하긴 하는 건지?/ 인터넷에만 떠도는 건지./// 통통 튀는 네 친구도/ 보이지 않는구나./// 노란 옷 입고 다니는 아이들 중/ 너는 없구나./// 비싼 몸이라도/ 보고 싶다.

인천소양초 6학년 2반 서리나 학생의 시다. 어떤 제목을 옆두에 두고 시를 지었을까?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잠시 머리를 가우뚱거렸더니 제목이 ‘허니버터칩’이란단다. 수업 시간에 지은 동시를 한명도 빠짐없이 모아 병풍 북아트로 만들어 사물함에 올려놓으니 작은 시화전이 열렸다.

내가 만든 나의 이야기책 ‘북아트’

기자가 학교를 방문한 스승의 날에도 곽지순 교사와 6학년 2반 아이들은 북아트 수업이 한창이었다. 책 『파랑이랑 노랑이』(주니어파랑새)를 읽고 미술과의 ‘관찰과 상상표현’과 국어과의 ‘상상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가 결합된 독서·국어·미술 통합수업이다.

“이 책을 쓴 레오 리오니 작가는 손자와 기차여행을 하던 중에 지루해 하는 손자를 위해 잡지를 찢어서 파랑이랑 노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후에 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이 『파랑이와 노랑이』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야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색종이를 오려도 좋고 찢어도 좋아요.”

아이들이 북아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곽 교사가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한다. 첫째, 제목을 마음대로 정하되 표지에는 반드시 제목을 쓸 것. 둘째, 내용은 한 쪽 내지 두 쪽에 걸쳐 마음대로 표현하되 설명하는 글이 한 줄 이상 들어가도록 구성할 것. 셋째, 책의 맨 마지막은 설명하는 부분을 위해 남겨둘 것.

곽 교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북아트를 만들기 시작한다. 작가의 아이디어를 조금 차용해서 종이를 찢어 표현하는 아이, 초록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여행을 구성한 아이, 노란색을 떠올려 병아리를 주인공으로 삼은 아이, 길을 표현하고 싶는데 적절한 표현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아이, 그림을 망쳐 다시 하고 싶다는 아이 등등 시끌벅적하다. 곽 교사는 표현방법을 몰라 고민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조언하고 응원한다. 그 결과 ‘외톨이 검정이’, ‘초록이의 여행’, ‘병아리들의 친구’, ‘빨강이와 파랑이의 바다여행’에서부터 ‘하늘이는 나쁜 어린이’, ‘인생게임’ 등의 책이 완성되었다.

북아트의 내용을 다 채운 학생들은 표지 앞면과 뒷면을 꾸미는데, 이때 앞표지에는 출판사와 저자를 적고 뒤표지에는 이 책의 정보와 함께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북아트 수업은 마무리된다. 일찍 작품을 끝낸 아이들은 서로 작품을 둘러보며 “재미있다”며 키득키득 웃는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곽지순 교사의
북아트 활용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곽지순 교사의 북아트 활용 수업은 누구 하나 소외되는 아이 없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한다. 세상의 하나뿐인 나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기 때문이다. 소양초 6학
년 2반 아이들과 곽지순 교사



꾸미는 활동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국어교육을 전공한 광지순 교사는 10년 전 북아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독서교육, 글쓰기 중심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나름 열심히 수업을 했지만 재미있어 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늘 고민이었다.”는 그는 우연히 북아트 활용 연수를 받고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그동안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수업에 북아트를 활용하자 독후활동, 창의적 글쓰기, 꾸미기 활동 등 모든 수업이 통합놀이처럼 새로워졌다. 접이책(2면 북아트), 병풍책(4면 북아트), T-갈라접기책(8면 북아트), 주머니책 등 몇 가지 접이방법만으로 다양한 교과 수업이 가능했던 것.

하지만 광 교사도 초창기 아픈 기억이 있다. 꾸미는 활동이나 손 조작이 서툰 아이들에게 어려운 북아트를 시도했는데, 중간에 포기해 버린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40분 수업에 북아트를 만들고 꾸미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런 이유로 광 교사는 수업시간에 북아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만들거나 꾸미기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작품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가’보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구성했는지, 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기준으로 우수작품을 선정한다.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북아트는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북아트 작품에 담긴 내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꾸미기가 서툰 남자아이나 미술활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북아트 활동에 싫증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작품을 따로 분류해 평가하게 해요. 아이들도 점차 북아트 작품을 평가할 때 미술을 잘하는 아이의 작품보다는 창의적이면서 내용을 성실하게 채운 작품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북아트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만족도가 높은 아이일수록 북아트 작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어떤 수업에 북아트 활동을 넣을 것인가

광지순 교사는 북아트 활용 수업을 하면서 나름의 철학이 생겼다.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죠. 북아트는 수업을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북아트를 활용할 때는 출발점이 달라야 합니다.” 광 교사는 북아트 활용 수업을 할 때 북아트의 모양보다는 어떤 수업에 북아트 활동을 넣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배우는 단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몇 차시인지 전체를 살펴보고 정해진 수업시간 안에 어떤 활동을 넣으면 좋을지를 구상해요. 이 단원에 북아트가 유용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지면의 수와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미리 수업설계를 하면, 북아트의 지면이 남거나 부족한 일도 없고 수업시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광 교사가 제안하는 북아트 활용 수업의 포인트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게, 종이도 저렴한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북아트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실수해도 부담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화지와 A4용지를 주재료로 활용한다. 또한 단원을 끝내고 학습을 총정리 할 때는 교과서의 사진자료를 그대로 오려 사용한다. 광 교사는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사진자료는 어디서 구하느냐’는 것이다. 요즘은 공책을 정리하거나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적다. 교과서 사진을 오려 사용하다보니 한 학년이 지나면 교과서는 너털너털해지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의미있는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보관한다.”고 말한다.

또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 시간을 5분 10분 단위로 끊어서 활용한다. 즉 표지를 꾸미는데 10분을 할애한다면, 1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간다. 이때 일찍 마친 아이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해 미완성된 부분을 채워나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몇 차시에 걸쳐 만들다보면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된다.

곽 교사의 반에는 학습지가 없다. 수업시간에 만든 북아트 작품들을 하나씩 모으면 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 학급신문이나 학급문집, 체험학습 보고서도 모두 북아트로 만들 수 있다. 북아트 활용 수업은 국어와 미술 수업 외에도 사회와 과학시간에 단원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데 적합하다. 곽 교사는 “사회, 과학시간에 배운 내용을 북아트로 정리하는 시간은 한마디로 어려운 지식을 아이들에게 천천히 소화시키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사회, 과학은 어려워하지만 북아트를 활용하면 학습내용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곽지순 교사에게 북아트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수업 내용을 자유롭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북아트예요.” ②

02 곽 교사는 북아트 활용 수업을 할 때 북아트의 모양보다는 어떤 수업에 북아트 활동을 넣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03 색종이를 이용해 오리고 찢으며,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북아트 작품을 만드는 아이들



과목별로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과목	북아트 활용법
<p>국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집 만들기: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시를 읽기 전과 후 비교하기, 시 짓기, 시와 관련된 경험 쓰기 등을 한 학기 동안 정리하면 멋진 동시집이 완성된다. - 이야기 짓기: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야기 상상하기, 편지쓰기 단원 등을 미술과 연계하여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 학급신문 만들기 : 북아트는 모둠별로 활동하기에 적합하다. 4절지를 주고 모둠활동을 시키면 간혹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생긴다. 하지만 북아트를 활용하면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종이접기를 통해 지면을 나누고, 레이아웃을 잡아 각자 일을 분담하며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p>사회</p>	<p>아이들이 북아트로 공부해서 가장 도움이 된 과목으로 사회를 꼽을 정도로 북아트와 사회수업은 궁합이 잘 맞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정리하기 : 학습내용을 정리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2면 북아트를 활용하면 좋다. 한 학기동안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면 식상할 수 있으므로, 단원별로 다르게 활용해 볼 것. 교과서를 보면서 요약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다. 사진자료는 과감하게 교과서를 오려 사용하였다.
<p>과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을 정리하거나 관찰일지를 쓸 때, 실험과정을 정리할 때 북아트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또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림과 다양한 일기, 편지쓰기 형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 <강이나 바다> 단원은 물결책으로, 실험보고서는 실험도구 모양으로 만들어 활용하면 유용하다.
<p>수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도형 단원은 학습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삼각형 모양책을 활용할 수 있다. 미리 종이접기를 해 둔 상태에서 도형의 특징을 삼각형 책에 정리하는 것이다.

이효경 교사의 과학마술 수업

납작해지는 주사위·튀어 나오는 우유갑... 재미있게 마술로 배우니 과학원리가 쏙쏙

경기도과학마술교사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산공업고등학교 이효경(52)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학 선생님’이 아닌 ‘과학 마술사’로 불린다. 과학 수업에 ‘마술’을 접목한 그의 수업은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는 마술”이라고 한다. 올해로 과학마술 수업을 10년째 하고 있는 이효경 교사의 수업을 소개한다.

쉬는 시간 종이 울렸다. 학생들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한 손에는 과학교과서, 다른 한 손에는 우유갑을 들고 물리실로 옹기종기 모여 들어간다. 학생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 보였다. 한 학생이 다가와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한다. “선생님도 마술 보러 오셨어요?” 어떤 학생들은 신난 표정으로 수업 종이 울리기도 전에 앞자리를 맡느라 정신했다. 이제 곧 시작될 과학마술 ‘쇼’를 되도록 가깝게 보기 위해서다.

‘과학 마술사’로 불리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과학마술 수업! 수업 준비되었나요? 짜잔~!” 하고 이효경 교사가 손을 펴자 손에서 지팡이가 튀어나온다. 학생들의 두 눈은 모두 휘둥그레졌고, 순간 놀라더니 감탄을 멈추지 않는다. 드디어 과학마술 수업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방심은 금물! 집중하세요.” 이효경 교사가 얇은 판을 접었다 폄다 반복하자 계속해서 컵이 나온다. 컵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은 신기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일어나 선생님을 주시한다. 이번엔 주사위를 꺼내어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사위다. 손바닥에 주

사위를 놓고 다른 손바닥으로 주사위를 “탁!” 내려쳤는데 주사위가 납작해진다. “와! 신기한데!”를 연발하는 학생들의 흥미는 커져가기만 한다. 마지막으로 캔디 강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캔디 강통을 열자 모두들 깜짝 놀란다. 강통에서 캔디가 아닌 아주 긴 모형의 뱀이 튀어 나왔기 때문이다.

“오늘 마술의 공통점이 보이나요? 외부의 힘을 받은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 하지요. 신기한 마술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탄성력이라는 과학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여기 비닐 컵 보이나요? 사실은 얇은 판에 눌러 평평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힘을 빼게 되면 원래대로 둥글게 말리며 컵 모양이 되지요. 컵이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요?”

이효경 교사의 말이다. 이날 수업에서 배울 주제는 고1 공통과학 단원인 탄성력. 우선 탄성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변화되면 되돌아가려는 ‘변형’과 ‘변위’의 개념을 알아야 했다. 학생들은 신기하게 보았던 마술의 원리를 다시 보면서 ‘변형’과 ‘변위’의 개념을 마술도구 사례를 들어 이해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탄성력은 변형되는 변위 x 에 비례하고, 변형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탄성력인 ‘훅의 법칙’을 이해한다.



01 과학마술 재료가 든 이효경 교사의 마술가방. 아이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카드도 눈에 띈다.

02 튀어나오는 우유갑을 만든 후 뭉쳐서 날려보고 있는 학생들



QR코드를 스캔하면 이효경 교사의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온 과학미술

이어진 과학미술 실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이날 준비한 우유갑의 양 끝을 가위로 자른 후 고무줄로 고정시킨다. 그리고 고무줄을 놓으니 고무줄의 탄성력 때문에 우유갑이 위로 튀어 올랐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간단한 실험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고무줄 우유갑을 모아서 상자에 넣더니 캔디 깡통으로 본 마술도 그대로 따라해 본다.

이렇게 과학미술을 보고 실험을 한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탄성력의 원리를 쉽게 찾아냈다. “장대높이뛰기에 쓰이는 막대기의 원리도 탄성력이예요.”, “완력기에도 탄성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번지 점프할 때 로프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탄성력이죠?”, “드라마에 등장하는 활의 원리도 탄성력으로 설명 가능해요.” 너도나도 사례를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생활 주변에서 과학 원리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미술 도구를 만들어봄으로써 과학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공은혁 군은 “과학이 어렵지 않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말한다. 강주연 양 또한 “미술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재미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 있다는 생각만 하다가 과학미술을 보면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게 됐다.”며 웃는다. 선생님과도 더욱 친숙해졌다. 임창혁 군은 “이효경 선생님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된다. 과학미술로 도구를 만들어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 매우 좋다.”고 전한다.

수업 가능한 미술실험 연구 노력

이효경 교사는 올해로 10년째 과학미술을 선보이고 있



03



04

03 판에서 나타나는 컵 마술을 선보이는 이효경 교사. 탄성력의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미술이다.

04 과학미술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재료로 대체실험이 가능하다.

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술 목록만 수십여 개. 지난 안산 관내 연구수업에서는 편광 원리를 이용해 카드 마술을 선보였다. 특히, 학생들은 조별로 미술도구와 재미있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라졌다 나타나는 그림이나 편광 선글라스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수업이 더욱 풍성해졌다.

“학생들이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과학수업과 미술을 접목할 때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도 했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미술사처럼 표정도 연습하고 교과서 자료 개발을 하면서 스스로도 과학미술의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미술은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고무막 동전 통과 미술, 불에 타지 않는 풍선, 촛불 장미, 타지 않는 종이돈, 떠오르는 성냥, 유령 스카프, 팔 교차하여 볼펜 두드리기 등. 수업시간에 보여준 판에서 나타나는 컵, 납작해지는 주사위와 튀어 나오는 우유갑은 탄성력을 가르칠 때 보여주는 대표적인 미술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로 대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미술도구들을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것들을 주로 이용할 수업에 접목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이다.

“수업시간에 미술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흥미위주로만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과 다양한 주변 사

물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업연구가 필요하지요.”

2005년부터 신입 과학교사 연수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과학미술동호회를 만들고 각종 수업 콘텐츠도 연구 중이다. 창의적 과학수업을 위한 과학미술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최근에는 융합과학교육으로 연구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또한, 테마 연수 자료집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강의도 진행한다.

“과학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다.”는 이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수업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뒀다. 특히,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에서는 과학미술 수업을 적용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봤다. “과학미술은 자유학기제에서 훌륭한 과학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이 교사는 전한다. ⑦

[표] 학습 요소별 과학미술 예

학습내용	과학미술	원리
탄성력	고무막 동전 통과 미술 풍선의 입구를 잘라내고 컵 위에 씌운 후 그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동전을 눌러서 풍선 막을 통과하여 컵 속에 떨어지게 하는 미술이다. (풍선 막을 눌러서 동전을 감싸게 하여 컵 위에 씌운 것으로 동전은 풍선 막 위에 있던 것이 아니고 풍선 막 아래에 붙어 있던 것이다.)	늘어났던 풍선이 다시 오그라들면서 동전을 잡아주는 것으로 풍선의 탄성력을 이용한 미술이다.
자기력	가루 자석 미술(내 맘대로 자석) 가루 자석을 필름 통에 1/3정도 되도록 담고, 뚜껑을 닫는다. 필름 통을 가볍게 흔들어서 자석가루를 섞은 후 작은 핀에 가까이 가져가면 핀이 달라붙지 않아서 자성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필름 통 바닥에 강한 네오디뮴 자석을 붙였다 뗐 후, 다시 핀에 가까이 가져가면 핀이 달라붙는다.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가루자석의 극이 네오디뮴 자석에 의해 정렬됨. 철이 자화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보호색	덤덤 앤 실크(Thumb Tip & Silk) 손 위에서 작은 스카프가 사라졌다 나타나게 하는 미술, 엄지손가락 모양의 모형을 엄지손가락에 끼고 그 모형 속에 스카프를 감춘다.	실제 손가락과 색의 모양이 비슷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돌림힘 (토크)	손가락 체인에 걸리는 고리 손가락에 목걸이 줄(체인)을 걸고 고리를 떨어뜨리면 고리가 체인에 걸린다.	고리를 떨어뜨리면서 회전시켜 체인에 걸리게 하는 것으로 돌림힘 (토크)을 이해할 수 있다.
공명	내 맘대로 흔들기 긴 막대기에 길이가 다른 몇 개의 진자를 만들어 놓고 진동시키는데 상대방이 지적한 진자만을 진동시킬 수 있다. 막대기를 흔들어 진자를 진동시킬 때 원하는 진자의 고유진동수에 맞추어 진동시키면 된다.	막대기를 흔드는 내 손의 진동수와 원하는 진자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공명 현상을 이용한다.
빛 반사	미술 상자 상자의 앞덮개를 열어 상자 속이 비어있음을 보여주고 상자의 뒷덮개를 열어 지우개, 캔디 등 물건을 꺼내어 보여준다. 실제 상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상자 속에 대각선으로 거울이 들어간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보면 거울에 반사되어 대각선의 거울 벽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물건은 그 거울 뒤 공간에 넣어두는 것이다.
연소, 소화	도브 팬(Dove Pan) 불이 붙은 팬에 뚜껑을 덮었다 열면 불이 꺼지면서 꽃, 사탕 등이 쏟아져 나온다. 불은 어떻게 꺼진 것이며, 또 꽃이나 사탕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 실제 팬은 이중으로 되어있으며, 그 공간에 꽃, 사탕, 비눗기 등을 숨겨놓는다.	팬의 뚜껑을 덮어서 공기(산소)를 차단시켜 불을 꺼지게 한다. 온도, 연료, 산소 중 하나를 제거하면 불이 꺼진다는 소화의 원리를 이해한다.
베르누이 정리	떨어지지 않는 페트병 1.5L 음료수 페트병에 물을 약간 넣고 송풍기로 비스듬하게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페트병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그대로 떠있게 된다.	유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압력이 낮아진다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여 페트병은 떠있게 된다. 비행기가 뜨는 원리, 야구공의 커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Dream for Future'

자유학기의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선생님들

'Dream for Future'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공모전에 2년째 활동해오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의 서울 다섯학교(당산중, 중암중, 대왕중,



무학중, 해원여중) 진로진학상담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창의적 체험시간(동아리 활동)을 활용해 미래유망 직업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지원한다. 'Dream for Future'는 계층과 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도록 진로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Dream for Future' 소속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단'도 겸하여 교원 및 학생들을 위한 각종 연구활동도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여름방학에 '초·중등교육과'가 함께 설치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를 말하다!'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중암중학교(진미숙 회장)는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기업가정신 체험활동'을, 대왕중학교(교사 백대현)는 따돌림이나 기초학습능력부족 등 학교적응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웹툰제작, 파충류기르기 등)을, 무학중학교(교사 정선영)는 책 속에서의 나의 미래상을 찾고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는 진로독서를, 당산중학교(교사 김보기)는 직업전문가 인터뷰 및 상급학교 방문을 통한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활동을, 해원여자중학교(총무 채일동)는 '일반진로동아리'와 '교육복지 수혜학생'을 위하여 이원화된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활동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Dream for Future'는 ① 독서 속에서의 나의 미래

상 ② 미래사회의 법률 제정 ③ 기업가정신 체험 ④ 파워 여성이 되기 위한 진로탐색 활동을 한다. 연구회는 ① 수업자료 활동지 ② 학생관찰 평가자료 ③ 수업매뉴얼 ④ 포트폴리오(미니북) 등을 만들어

진국의 학생들을 위해 보급할 계획 중이다. 'Dream for Future'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발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

글_ 채일동 명예기자(해원여중 교사)

지역 : 서울

대상 : 진로진학상담교사 혹은 진로교육에 관심있는 교원

대표 : 진미숙 교사(중암중 02-305-4917)

논산교육품물 두드림(Do Dream)

우리가락 알리는 품물전도사

우리 품물의 소중함과 흥겨운 가락을 이웃과 세계인들에게 전파해 주는 품물전도사들이 있다. 논산교육품물 '두드림'은 '논산사랑, 교육사랑, 우리가락사랑'의 깃발 아래 논산의 초·중등교육현장에서 품물놀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주도로 2003년 3월 창단한 교육품물놀이 단체이다.

두드림은 그동안 논산사랑시민경기대회축하공연(2004), 논산시문화원주최 정월대보름행사공연(2005), 일본구마모토현 교사 백제역사탐방단 축하공연(2006), 논산팔기축

전북스팀로봇연구회

‘정보영재교육’ 등 컴퓨터교육 열정 꽃피워

‘전북스팀로봇연구회’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컴퓨터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학생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한 ‘알고리즘 동아리’를 만들었으며,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

원 정보영재 학생들과 관심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시작으로 지금의 전북스팀로봇연구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는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전라북도 과학축전, 사이언스데이, 과학문화축전에서 현직교사를 중심으로 로봇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로봇과학문화를 접하기 힘든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광수 회장(김제 검산초 교사)은 “스팀로봇연구회가 점차 내공이 쌓여, 전북 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



과학문화축제에서 처음으로 현직선생님들만으로 부스를 운영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지금까지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전북스팀로봇연구회’의 계획은 더욱 내실을 기하는 것. 정회원 20여 명의 교사들이 컴퓨터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뭉쳐, 여전히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과 컴퓨터교육에 대한 열의를 다지고 있다. ㉠

글_ 박춘연 명예기자(한솔초 교사)

지역 : 전북

대상 : 로봇과 컴퓨터 언어에 관심 있는 모든 교원

대표 : 정광수 교사(검산초 063-546-0043)

제 국악한마당공연, 부여서동연꽃축제 시 낭송회 축하공연을 비롯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등 100여 회 이상의 공연을 한 살아있는 풍물패다.

두드림 회원들은 화려한 개인성적 외에

도 연구의지도 확고하다. 2008년 전국농악경연대회 상쇠 개인상수상(윤여진 논산교 교사), 청소년문화제 등에서 금상 수상한 바 있으며 2014년 8월 교육부 지정 전통문화수업연구회 공모사업에 선정, 올해 6월까지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 연구는 앓은반 사물놀이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경연대회용 지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지역고유의 두레풍장놀이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와 지역민들이 함께 손잡고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을 거듭하며 활동공간을 확대해오며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논산교육풍물 두드림은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풍물을 익히게도 하고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공연과 아울러 풍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 열린 문화 공동체이다. ㉠

글_ 김중우 명예기자(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무관)

지역 : 충남 논산

대상 : 풍물에 관심있는 교원

대표 : 윤여진 교사(논산교 041-734-3496)

김영환 부산 낙동중 교사

학교폭력 물리치는 ‘낙동 슈퍼맨’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방을 주시한다. 어깨에는 바람에 휘날리는 망토를 두르고, 가슴에는 슈퍼맨을 상징하는 ‘S’마크를 달았다. 빨간 조끼를 두 다리에 끼워 위로 치켜 올리자 영락없는 우리들의 히어로 슈퍼맨이다.

부산 낙동중에 나타난다 하여 이름 붙여진 ‘낙동 슈퍼맨’. 정의를 지킨다는 그는 체육 시간,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학교폭력은 내가 물리친다!”

“예전보다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지요.”

낙동 슈퍼맨의 주인공은 김영환(42) 부장교사다. 그의 퍼포먼스를 본 아이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깜짝 놀랐잖아요.” “선생님 너무 웃겨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등등. 소소한 학교폭력이 있는 날이면 그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흰 소복을 입고 석고대좌를 펼친다. 춘향이처럼 목에 칼을 차고 점심시간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홈베이스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학교폭력은 나빠요!”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나는 정말 죄인 중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부수련회 때 담력훈련을 하기 위해 소복과 귀신 가발을 샀는데, 수련회가 끝난 후 이 소복을 사용할 때가 없나 생각하는 찰나, 춘향전에서 춘향이 가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지요.”

재미를 추구하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2학년 한 여학생은 그의 퍼포먼스를 본 후 “자신과 주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언어와 행동 습관들에 대해 돌아봤다.”는 쪽지를 전했다. 김 교사는 “분장이나 메시지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나와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는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란다.

그가 퍼포먼스를 시작하게 된 건 2009년 부산 연제중에서 생활지도부장을 할 때다.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귀신 복장을 하고 화장실에 숨어서 ‘담배를 피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놀라서인지 그때부터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이 사라졌다. 엄격한 규율만 강조하는 생활지도보다는 재미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활지도가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퍼포먼스는 학생들에게 가르침과 함께 웃음을 선사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학교 전체에 캐롤을 틀고 산타복장을 한 후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선물 나눠주기. 귀신 복장을 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자는 캠페인 펼치기. 롯데디자인즈 응원단 복장을 하고 학교폭력 없는 우리학교 파이팅! 외치기, 직접 학



01



02

01 크리스마스 이브날 학교 전체에 캐롤을 틀고 산티복장을 한 후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02 '학교폭력 나빠요' SNS 전달하기

03 소소한 학교폭력이 있는 날이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석고대죄 퍼포먼스를 펼친다.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벌칙선택프로그램은 그가 오랜 고민 끝에 학생 스스로 자율적 실천 의지를 높이도록 시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다. 2012년 교육부



03

생으로 분장해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하는 사진을 학생들과 연출해 SNS에 올리고 '학교폭력 나빠요' 제목과 함께 전달하기 등을 해왔다. 퍼포먼스 학교폭력 예방 후 낙동중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학교폭력이 '0'건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재미있게 접근하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생각해보지는데 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학생 자신인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지난 간부수련회 때는 '학교폭력 OUT' 런닝맨 게임을 실시했다. 아이들이 흥미로워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컨셉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방관자, 왕따, 자살, 빵셔틀 등)을 이름표에 쓰고 그 이름표를 떼는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찾아 뿌리 뽑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줬다. 특히, 그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내 친구사랑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봤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등교시간 학교 정문에는 각 학급 담임교사, 학교임원, 채움이(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프리허그를 하는 활동도 이런 이유다.

담배없는 니코틴프리스쿨 만들기 시동

체육교사로 다년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도맡아 온 그는

학교폭력종합대책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정도로 주목을 받아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벌칙선택프로그램은 1~4단계로 운영되는데, 1단계에서는 벌칙을 받는 학생이 수업점검표와 청소점검표 중 하나를 선택한 뒤 1주일간 점검표 활동을 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활동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도 중요한 건 여러 벌칙 중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벌칙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지도의 문제는 담배에서 시작된다고 본 그는 담배 피는 학생들의 모임(푸르미 활동)을 8년째 지도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있는 담배꽂이를 चु는 활동뿐 아니라 자기 꿈을 스스로 가꾸기 위한 푸르미 일지를 매일 써야 한다.

김영환 교사가 중간·기말시험 시험지 맨 마지막장에 꼭 적는 문구가 있다. '오랫동안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닮아간다'. 그는 앙드레 말로의 이 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스스로도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다. 평소 상담에 관심이 많은 그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 중이다.

"소통이라는 영어단어 communication에서 'I'보다 'U'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U'를 먼저 생각하는 공감과 소통이 잘 이뤄진다면 행복한 학교가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알찬 직업교육으로 더 넓은 세계 품는다



선취업 후진학은
교육개혁 출발점

학교와 일터 오가며
배우니 기술력 쑥쑥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 지원 팍팍

정부는 2008년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을 시작으로 2010년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교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를 도입하였고, 특성화고의 정예화·전문화를 추구하였으며, 고졸 취업의 확대와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올해는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으로의 진화를 위해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9개교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선취업 후진학’ 모델을 만들고 있는 교육부 직업교육 정책을 짚어보고, 맞춤형 산학연계가 이뤄지고 있는 교육 현장을 소개한다.





선취업 후진학은 교육개혁 출발점

글_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미래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키워드로 인구, 자원·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기후, 과학기술 변화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래사회의 노동환경 변화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출산율 평균 2.55명(2010, OECD)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숙련 노동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 급별의 급격한 구조 조정 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발달에 따라 요구하는 인재상도 일반능력과 전문능력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요구하게 될 전망으로,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직업에 관한 기초능력을 갖추고 지식 및 정보를 수집·가공·창출·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지닌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겠다.

선취업 후진학을 강조하는 이유

고교 직업교육은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후 산업구조 변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가구 당 자녀 수 감소, 대학 팽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교 직업교육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2009년 73.5%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OECD 평균(23세)보다 2년 이상 늦은 입직,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mismatch), 과도한 교육비 증



01 산학일체형 특성화고인 시화공고 실습 모습

가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어 정부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강조하게 되었다.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마이스터고를 도입하였고 특성화고의 정예화·전문화를 추구하였으며 고졸 취업의 확대와 함께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2014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44.2%로 지난 2009년 16.7%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진학률은 38.7%로 13년 만에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서는 성과를 이루었다.



산·학·관이 협력하는 현장중심 맞춤형 직업교육

이번 정부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2014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정부·기업·학교의 협력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¹⁾을 마련하는 등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고졸 취업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유럽이나 영연방 국가의 도제교육을 한국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등학교²⁾” 9개교를 도입·운영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³⁾ 하며 채용을 전제로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운영을 확대⁴⁾ 하여 취업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구축

교육부는 재학 단계에서 가급적 일찍 취업을 확정하고 취업한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훈련(work-based learning)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졸업 이후에도 선취업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야간·주말 및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학기당 이수학점을 감축하며,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후진학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사내대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계속교육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다.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직업에 관한 기초능력을 갖추고 지식 및 정보를 수집·가공·창출·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지닌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산업단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운영모델⁵⁾을 개발하고,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시하여 고교 3년 동안의 인력양성에만 한정되는 지금의 교육체계를 졸업이후의 노동시장에서의 인력활용과 지속적 능력개발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선취업 후진학 모델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즉, 이제 후진학도 선취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제도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②

1)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2014.10.2,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2014.10.28, 국무회의)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2014.12.9, 국무회의)
2)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한 시범학교
3) 마이스터고 지정 : 44교(2014) → 47교(2015)
정부부처 특성화고 지원 : 213교, 399억 원(2014) → 230교, 450억 원(2015)
4) 기업 맞춤형 참여 : 188교, 808개 기업, 9,171명(2014) → 900개 기업, 1만명(2015)
5) 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2015.4.7)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학교와 일터 오가며 배우니 **기술력** 쑥쑥

시화공업고 2학년 양혜정(18) 양은 매주 목, 금 이틀간 회사로 '등교'한다. 학교에서 4km 이내에 있는 (주)동우에스티가 혜정의 배움터다. 학교에서 배운 컴퓨터응용기계 이론을 바탕으로 CNC 선반, MCT 등 정밀가공을 산업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다. “직장 사수도 있다. 1:1로 현장에서 절삭가공 기술을 배운다.”는 혜정은 “학교보다 기계도 현대화되어 있어 좋다.”고 만족해했다.

기업·학교 공동으로 교육과정 개발

경기 시흥 **시화공업고(교장 구자도)**는 기계산업분야로 특화된 도제훈련을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컴퓨터응용기계과 2학년 희망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도제반을 꾸리고, 채용약정을 맺은 18개 우수 중소기업에서 1~5명의 학생이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

지난해 원종영 부장교사를 주축으로 교육훈련전담자 1인을 포함, 5명으로 도제교육부를 구성해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구자도 교장은 “전공교과와 산업현장의 매칭이 잘 되어야 한다. 시화공업고는 시흥안산스마트허브가 인근에 있어 도제교육에 최적이다.”며 “TF팀을 만들고 각각의 회사별 프로그램 개발보고서를 만들었다. 총 18권을 만드느라 다들 며칠 밤을 꼬박 새웠다.”고 말한다.

도제교육 도입 후 교육과정 또한 전문교과 위주로 바뀌었다. 전문교과 총 수업시간 대비 현장훈련 시간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특히, 인문교과와 전문교과 비율이 50:50이었다면 전문교과 비중이 60%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여러 특전도 주어진다.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채용 약정되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또한, 전문대 수준의 자격증인 절삭가공 13도 취득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 도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신자격 취득을 위한 수업도 별도 마련하고 있다.

원종영 부장은 “학생들의 대화 주제가 일터에서 배운 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것”이라며 “학교와 회사를 오고가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 회사 가는 게 좋다고 한다.”고 말한다. 산업체에서도 도제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덕수 (주)동우에스티 공장장은 “2년 약정 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쓴다. 교육과정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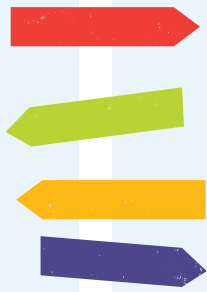
10년 이상 숙련된 엔지니어, 현장교사로

학생이 학교와 일터를 오가며 직업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가 주목받고 있다. 이 학교는 스위스 도제교육의 강점을 우리나라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 형태로, 올해부터 전국 9개 학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과 학교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01





개발·운영하는 점이 특징. 학생들은 취업 때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기업현장 교육 시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혜택도 받게 된다.

인천기계공고(교장 윤인문)는 금형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우수 금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천·부천지역의 24개 우수 금형관련 기업과도 협약을 맺었다. 이중 HST(주) 등 19개 협약기업과 2학년 56명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5월 7일부터는 기업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기계과 금형도제과정 2학년 유덕환(18) 군은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초정밀 금형제작 업체인 HST(주)에서 근무 중이다. 앞으로 2년 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참여 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특전도 얻게 된다.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장비들을 보고, 초정밀 가공기계를 직접 배우게 된 점이 가장 좋았다.”는 유 군은 “우리나라 뿌리 산업을 이어가는 금형분야 명장이 되고 싶다는 인생의 목표도 생겼다.”고 말한다.

학교는 최대 3년간 매년 20여 억 원의 시설기자재,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금형제작 1.2실, 금형 CAM 1.2실을 새로 구축했다. 금형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권역별로 협약 기업과 팀티칭 전담 교사제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 고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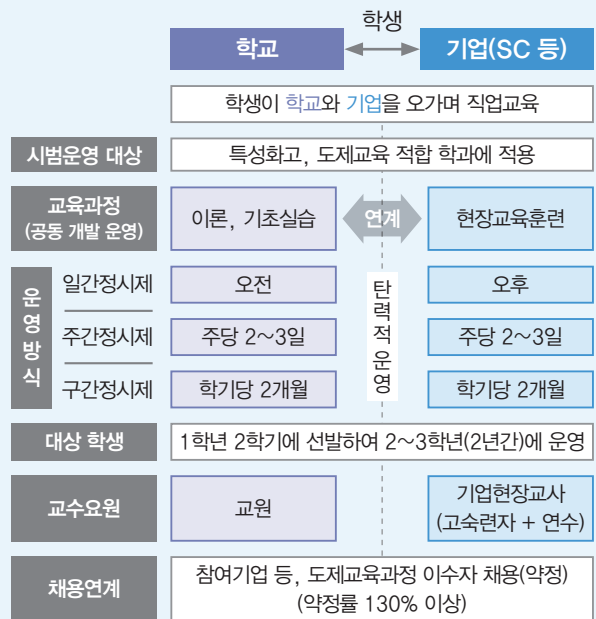
01 김덕수 (주)동우에스티 공장장이 시화공고 도제반 학생들에게 CNC 밀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인천기계공고 HST(주) 기업현장교육 장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10년 이상 숙련된 엔지니어도 현장교사로 투입됐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청,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사)대한민국 명장회 등 유관기관은 도제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형분야 전문가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윤인문 교장이 금형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산업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며 협의체 구성에 적극 노력한 결과다. 이승환 부장교사는 “무엇보다 우수 협약기업의 발굴이 중요하다. 현재 24개 기업과 협약을 맺기 위해 수 개월간 교장, 교감은 물론 모든 학과 교사가 120개 이상의 기업 문을 두드려야 했다.”며, “학생을 위한 금형분야 우수 취업처 확보도 관건”이라고 전한다. ㉓

[그림]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운영모형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 지원 팍팍



여주지역농고 현장실습 모습

“농업 마이스터가 되어 미래 영농을 이끌겠습니다.”
 경기 여주에 있는 **여주지역농고(교장 김병순)**는 농업분야 인력 양성 특성화고다. 이곳에서는 농업에 대한 기초·심화 지식뿐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30만평에 가까운 실습 부지를 소유해 재학생 모두 자신에게 직접 할당된 땅을 경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영농과제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운영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90% 이상의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전공 심화를 위한 동아리 운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해 미래 후계농 육성을 위한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농업분야 창업과 승계를 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참가 학생은 창업 동아리를 필수로, 성공 농업인의 창업 노하우, 창업 실무 기술 특강, 상품화 전략 기획과 판매 활동, 창업계획서 작성과 과제성과 발표 등을 통해 창업 능력과 창업가 정신을 배운다. 진로코칭과 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등 농업분야 창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단계를 제공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3학년 조인하 학생은 1학년 때 농가를 방문해 복숭아와 사과를 재배·가공·판매하는 과정을 배우고, 이듬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200만 원 지원금을 받아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해 보는 경험도 쌓았다.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으로 복숭아 농장 창업을 꿈꾸게 됐다.”는 그는 “농업관련 법들과 관련 특허들, 가공 기술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영농에 대한 태도와 의식변화 설문조사에서는 고교 졸업 후 영농직을 하고 싶다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주연 교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농업대학이나 관련 회사에 다니며 배운 내용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농업 종사자에 대한 존경심, 농업의 가치 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한다.

신성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는 2005년 교육부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으로 시작, 성장동력 산업분야와 구조적 인력 부족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6부 3청이 11개 사업에 414억 6,600만 원, 1교당 평균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 지원 대상학교만 230개 교로, 2008년 106교와 비교하면 학교 수와 지원 총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울산경영정보고(교장 차명석)는 국토교통부 선정 국내 최초의 공간정보 특성화고다. 이곳에서는 공간정보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DB/SW 기능교육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공간정보는 지도 데이터 등의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 산업분야로, 앞으로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변영숙 교사는 “국토교통부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와 산업체의 우수한 강사



울산광역시정보고 방과후 활동



대전공고 글로벌 해외 현장 학습

를 초빙한 현장일체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올해 첫 입학한 공간정보과 학생들은 공간정보 분야의 9과목의 전문교과를 이수하고, 헬리캠을 이용한 항공사진 촬영과 지도 제작을 하는 ‘날아라 슈퍼 캠’, 측량원점을 탐사하는 ‘오리엔티어링’, 구글어스, QGIS 등을 이용해 주제도를 제작하는 ‘드림 맵’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공간정보 정규교육과정과 산업체 연계교육도 받는다. 국토연구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주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교사연수와 공간정보 특성화고 재학생 취업활동 및 산업체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울산지역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서 울

[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지원 사업 현황

부처명	사업목적
국방부	군 특수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인력 양성
해양수산부	수산계고교인력 양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
특허청	지식재산 기술인력 양성
산림청	산림사업인력 양성
고용노동부	NCS 적용 특성화고 개편
국토교통부	항공 기초인력 양성
	공간정보인력 양성
	물류기능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분야 인재 육성
6부 3청, 11개 사업	

산경영정보고 공간정보과 지원이 두드러졌다.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변 교사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맞춤반으로 산·학 연계 강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전공고(교장 구연옥)는 ‘취업 대박’을 목표로 특화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분야 등 6개 학과 10개 과정에 취업맞춤반을 운영, 학생 120명과 60여 개 업체가 참여한 맞춤형 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는 교내 취업박람회를 열어 산업체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적응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중소기업청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연간 취업 실적의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지난해는 취업률 6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1팀 1기업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인테리어과에서는 전통창호 소목장과 함께 하는 전통가구제작 프로젝트를 운영해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이 반닫이를 제작했다. 민경윤 교사는 “중소기업의 인력과 학생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고 맞춤 훈련교육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도탈락 학생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다.

학교장 자격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공교과에 대한 학습능력을 높이고, 자동차 정비, 타일분야는 호주로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지난해는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69개 업체 1,102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현장견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①



마이스터고등학교

영 마이스터의 요람으로 우뚝

1978년 대전동아공업고로 개교한 동아마이스터고(교장 박종관)는 2010년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뒤 '영(young) 마이스터' 교육기지로 변모했다. 기술명장인 마이스터 양성에 힘쓴 결과, 전자·기계 분야 마이스터고로 입지를 다지게 된



것. 2013년 2월 1기 졸업생 취업률은 97.8%를 기록, 이후 2, 3기 졸업생도 평균 95%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며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대전 동아마이스터고에서는 우선 마이스터를 위한 진로설계가 눈에 띈다. 전자, LED 계열과 기계·자동차 계열로 학급이 구성된 1학년의 경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탐색 체험활동이 주를 이룬다. 전자과, LED조명과 등 전공에 따라 반이 나뉘는 2학년 때는 전공심화 과정으로 현장체험 교육과 전원 해외연수가 진행되며, 3학년이 되면 프로젝트 기반 융합과제로 심화된다.

삼성전자반·한화반 등 주문식 교육으로

또 다른 강점은 소그룹 직무별 심화 학습이다. 마이스터 기획부 정은환 부장교사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서 기업 직무별 심화내용은 소그룹으로 나눠 주문식 교육과 방과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주문식 교육반은 삼성전자반, 삼성디스플레이반, 한화반, 한전반 등 13개. 취업 약정된 기업의 실무를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2학년 때 지원되는데, 산업체 인사를 초빙해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기업반에서는 반도체

장비 제작과 설비를 다루며 일본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취업도 돕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기르기 위한 비즈쿨(BizCool)도 눈길을 끈다. 2005년 설립 후 창업대회 수상 실적만 40여 차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장비 교육도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3학년 김성윤(19) 학생은 "산학연계로 최적의 현장 교육을 지원한다."며 "학기마다 방과 후 교육으로 토의 영어강사를 학교에서 초청해 질 높은 외국어 수업도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교내 취업센터에는 전공별로 4명의 교사가 상주하며 진로상담부터 면접지도에 이르기까지 종합 취업지원을 한다. 직업 기초능력, 전공 능력,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인성·직업의식, 독서인증 등의 여섯 개 분야 졸업인증제도 실시해 마이스터로서 기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0% 취업 달성 눈앞... 명장공방으로 맞춤형 기술전수

철강 분야 마이스터고인 합덕제철고(교장 이충호)는 4대1의 높은 입학 경쟁률을 자랑한다. 올해 3기 졸업생 취업률은 98.91%로 '100% 취업' 달성도 머지않은 상황. 특히, 학교가 위치한 충남 당진에는 2005년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현대하이스코·동국제강 등 대형 철강업체와 협력 회사 등 4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철강클러스터도 조성돼 있다. 박석우 마이스터 부장교사는 "학교 인근에 철강클러스터 조성돼

대한민국 직업교육 이렇게 합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보는 직업교육



1 마이스터고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 (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수 **44교**
전체 고교대비 **1.56%**

학생수 **17,904명**
전체 고교대비 **0.86%**

학생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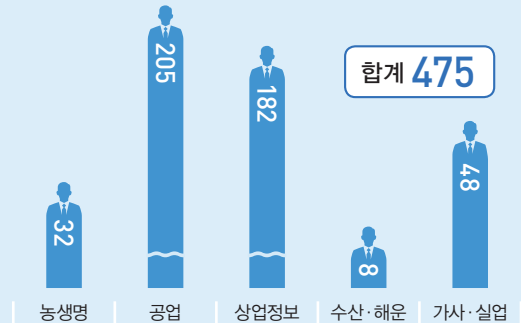
- 전체 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지원
- 우수 학생과 저소득층 대상 별도의 장학금 지급
- 학생들의 교육 집중을 위한 쾌적한 기숙사 제공
- 우수 학생 해외 산업체 및 직업전문학교 연수 기회 제공

2 특성화고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교수 **475교**
전체 고교대비 **20.63%**

학생수 **310,599명**
전체 고교대비 **1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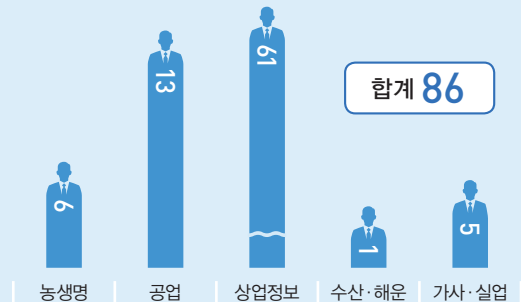
3 일반고(舊 종합고)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함께 설치한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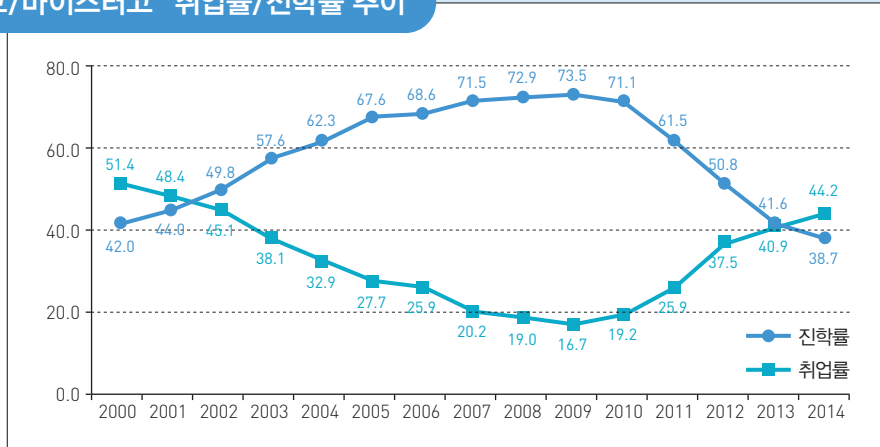
학교수 **86교**
전체 고교대비 **3.73%**

학생수 **51,013명**
전체 고교대비 **2.78%**

※ 직업교육과정 학생수 22,205명
(전체 고교대비 1.21%)



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진학률 추이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舊, 종합고 직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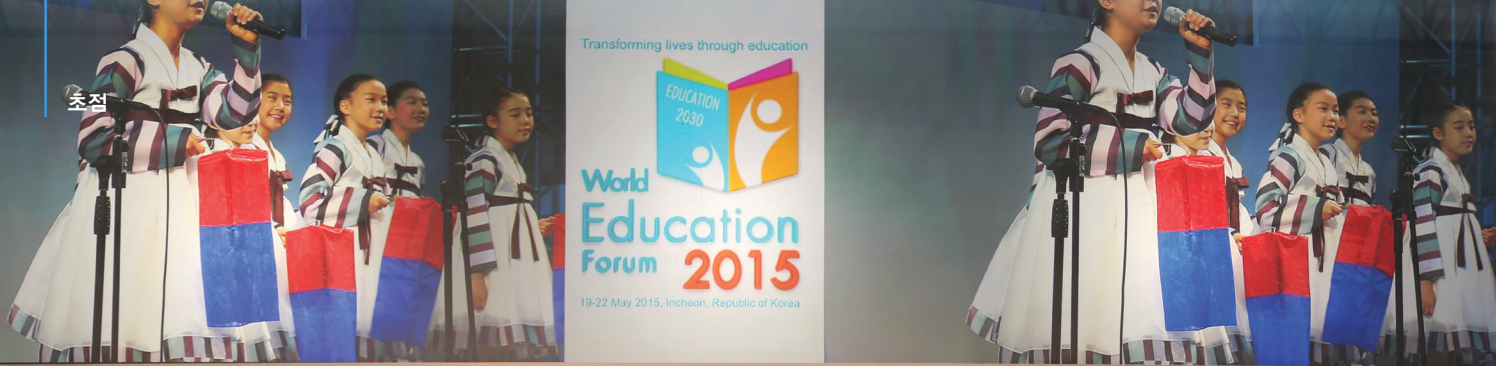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13년 만에 진학률을 앞섰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2014년 4월 1일 기준 취업률이 44.2%를 기록,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학률은 41.6%에서 38.7%로 2.9%포인트 떨어졌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90.6%, 특성화고는 45.3%로, 지난해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는 2년 연속 취업률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직업교육이 궁금하다면?

- 특성화고 포털사이트 www.hifive.go.kr**
 특성화고를 안내하고 입학정보, 취업정보, 후진학 정보뿐만 아니라 진로정보, 수업정보, 각종 대회정보 등 제공
- 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 www.meister.go.kr**
 마이스터고를 안내하고, 학교 현황, 입학정보, 산학협약 현황 등 정보 제공. 영 마이스터·스타 마이스터 소개 및 우수 포트폴리오 등도 탑재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지역	구분	문의처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센터	www.sen.go.kr	02)3999-564
		high-job.sen.go.kr	070-8685-7771
부산	인재개발과 특성화고 안내 취업지원센터	www.pen.go.kr	051)860-0392~6
		expert.pen.go.kr	051)860-0114
		work.pen.go.kr	070-4918-9161~4
대구	과학직업정보과 특성화고 안내 취업지원센터	www.dge.go.kr	053)231-0412
		dge.go.kr/silub/index.jsp	053)231-0411~4
		job.dge.go.kr	053)603-0850
인천	창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	www.ice.go.kr	032)420-8144
		jci.ice.go.kr	032)420-8191

광주	미래인재교육과	www.gen.go.kr	062)380-4432
대전	과학직업교육과 취업지원센터	www.dje.go.kr	042)480-7691
		job.edurang.net	042)480-7689
울산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www.use.go.kr	052)210-5523
		career.use.go.kr	052)210-5550
		jobgo.use.go.kr	052)210-5523
세종	창의진로과 진로진학취업센터	www.sje.go.kr	044)320-1175
		career.sje.go.kr	044)320-1125
경기	특성화교육과 취업지원센터	www.goe.go.kr	031)249-0262 1588-3726
강원	창의진로과 취업지원센터	www.gwe.go.kr	033)258-5361
		www.강원꿈드림.한국	033)258-5362
충북	과학직업정보과 취업지원센터	www.cbe.go.kr	043)290-2214 043)290-2217
충남	미래인재과 취업지원센터	www.cne.go.kr	041)640-7421
		cne.go.kr/cnedujob/main.do	041)640-7431
전북	미래인재과	www.jbe.go.kr	063)239-3395
전남	미래인재과 취업지원센터	www.jne.go.kr	061)260-0571
		job.jne.go.kr	061)260-0628
경북	과학직업과 취업지원센터	www.gbe.go.kr	053)603-3523*4
		www.cheerup.or.kr	054)460-0634
경남	과학직업과 취업지원센터	www.gne.go.kr	055)268-1221
		준비중	055)278-1652
제주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지원과 취업지원센터	www.jje.go.kr	064)710-0385
		bon4.jje.go.kr	064)710-0273
		jobjje.go.kr	064)710-0385



World Education Forum 2015



2015 세계교육포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비전 나누다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2015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 2015)'이 차세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한 7개 국제기구 대표와 각 국 정부대표단, 시민단체, 국내·외 석학을 비롯하여, 세계 각 국의 교육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올해는 각 국 장·차관 111명을 포함하여 167개국 약 1,500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성황을 이뤘다.

19일 개회식에서는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계교육 리더들의 연설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모든 학습자들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지원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포럼 기간 내 상설 운영된 세계시민교육 전시관과 ICT활용교육

전시관은 한국이 제시하는 미래교육 의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포럼 부대행사 중 유일하게 일반인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국내외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운영됐다. 특히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김연아는 유니세프 홍보관에 방문하여 시선을 모았다. 시리아 난민 소녀의 교육 이야기를 다룬 'Cloud over Sidra' 3D 영상을 유니세프 부총재와 함께 체험하며 "세계교육포럼을 맞아 어린이들의 미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첫 개최된 이후 15년마다 차세대 교육의제를 결정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유네스코가 주도해 온 기초 교육 보급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어갈 세계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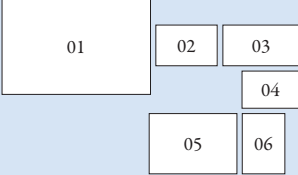
글 서용우 명예기자



02



03



- 01 21일 폐막식에서 한국 어린이 공연단이 청사초롱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 02 2015 세계교육포럼은 장·차관 111명을 포함해 167개국 약 1,500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03 NGO인 '세상에서 가장 큰 교육(The World's Largest Lesson)' 전시 부스
- 04 상설 전시 내 i-KAIST관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클래스(Smart Class) 멀티터치 테이블을 체험하고 있다.
- 05 ICT 활용 교육 홍보관 전경



04



05



06



07

이번 포럼은 전체회의와 주제별 회의, 분과별 회의로 진행됐으며, 이후 22일 폐막식에서 최종 선언문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일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교육 2030-교육의제와 실행 계획(Framework for Action)'을 주제로 각 국 장·차관들이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시하는 교육 비전은 다르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고민하는 교육의 문제점은 비슷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문맹 감소, 양성평등 교육, 초등교육 확대, 고등교육의 질 향상, 평생교육의 발전, 직업교육의 도입 등 한국에서 늘 고민하던 내용은 각 국가의 장관들이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었다.

이어 지속가능 발전의 교육목표(Goal 4)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6개의 복합적인 이슈에 관한 주제별 토론이 실시됐다. 아울러,

2030 교육의제와 관련한 글로벌 세부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10개의 분과별 회의도 실시됐다. 여기에서는 양질의 초·중등교육을 위해 학습에 대한 관심 확대를 촉구했으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가 평생학습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될 것임을 논의했다. 나아가 정책, 실행 및 연구를 위한 의제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한 교사'의 모습을 논의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튿날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발전을 이끈 한국의 사례와 지속 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논의 등을 거쳐 네 번째 전체회의에서 교육 2030 실행계획에 대한 동의와 최종 선언문 채택을 논의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교육 2030에 관한 교육계 공동 비전과 미래 교육의제의 이행을 안내하고 지원할 종합적인 실행계획에 동의할 것을 약속하며 2015 세계교육포럼의 최종선언문을 채택했다.

글_ 조수원 명예기자

2015 세계교육포럼의 최종선언문 주요내용

새로운 교육비전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기회를 진흥'하는 것으로, 선언문 내에는 유엔 개발의제의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명시됐다. 이 선언문은 앞으로 2030년까지 회원국 정부들에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안내하고 교육관련 국제기구들의 임무를 정의하게 된다.

선언문에서는 기존의 모두를 위한 교육 운동을 계승하여 9년의 초·중등교육을 보장하고, 청년·성인들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기회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고등교육 및 연구 지원을 약속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직업교육·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와 갈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GCED)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함께 선언문에 언급된 것은 기존의 교육기회 보장에 관한 논의를 넘어,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처음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인천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기회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것에 합의했다.



08



09

07	08	09
10	11	

- 07 5월 19일 열린 개회식
- 08 상설 전시 내 부산대학교 전시 부스, 학생들에게 모형을 통해 물류 자동화를 소개하고 있다.
- 09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선보이고 있다.
- 10 주제별 토론, EFA와 연계된 교육 이슈에 대한 총 6개 회의가 동시에 진행됐다.
- 11 세계시민교육 홍보관, 각종 교수학습자료와 책자가 비치돼 있다.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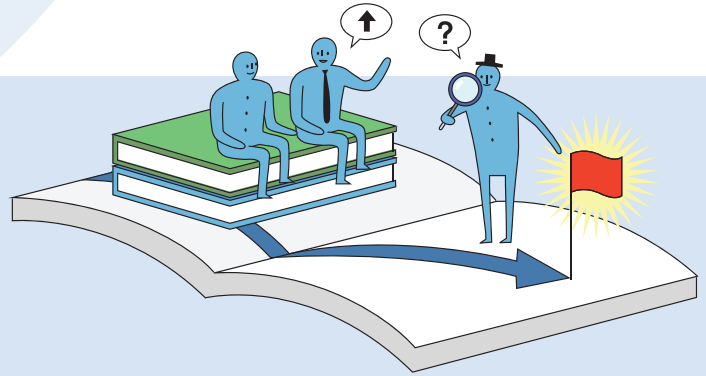


2014 우수학교 노하우② 중학교 편 경기 이매중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육부 주최 ‘좋은학교 박람회’,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학교평가 최우수학교’ 등 다수의 수상 경험이 있는 이매중의 교육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4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라는 명예 역시도 100대 교육과정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것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로 움직인 결과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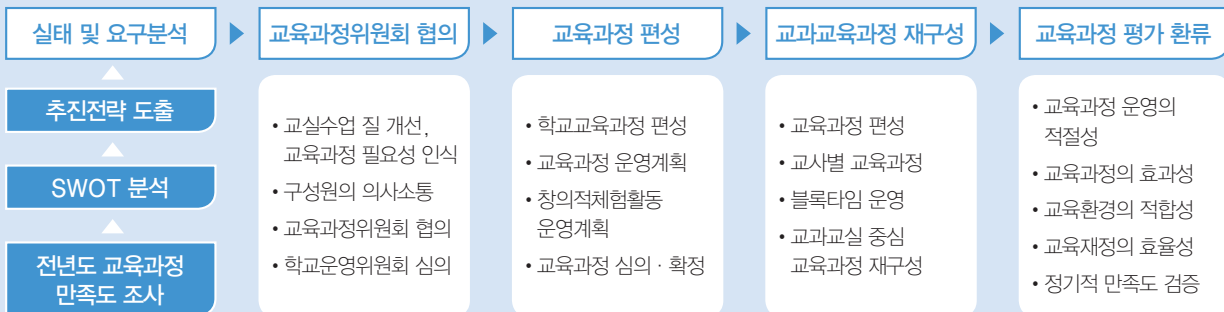
2011년도부터 4년간 교육부 지정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을 통해 감성기반 융합 수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 혁신공감학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협력학습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수업 개선과 더불어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으로 핵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쌓인 노하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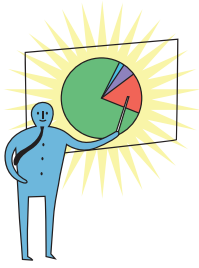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 동의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의 큰 재산이 아닐 수 없었다.

꾸준히 운영해 온 특화 프로그램 정비

‘새싹은 끼 영그는 꿈 즐겁게 공부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면서 ‘꿈꾸는 학교(Curriculum), 행복한 교실(Student), 성장하는 나(I)’라는 비전으로 학생들의 기쁨을 뛰게 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쌓인 노하우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 동의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의 큰 재산이었다.



100대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은 교육과정위원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고,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전년도 우수학교로 선정된 중등학교 5개를 선정하여 학교별 보고서와 교육과정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을 찾으려 하였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의 보고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www.ncic.go.kr>)의 ‘우수학교 교육과정’ 메뉴에 탑재된 것을 활용하였다. 경험을 토대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100대 교육과정의 주요 심사내용에 맞춰 스토리로 구성하였으며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교육과정 프로세스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교육과정-수업과 평가-체험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가 프로세스의 근간이 되었다.

교과별 협의회로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먼저 꿈꾸는 학교(Curriculum) 운영을 위하여 아래로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핵심성취기준을 반영한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인성중심 프로젝트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면서 교과 및 교사별 교육과정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을 운영하여 배움중심 수업을 실현하였으며, 외국어 중점 교육과정을 중국어와 영어 원어민 협력수업을 통해 운영하였다. 학기 말에는 꿈과 끼 탐색 주간, 진로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 대비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행복한 교실(Student) 만들기를 위하여 △아하! 함께 키

워기는 창의성 수업(교과융합프로젝트, 독서토론수업, 1교사 1 Self brand 개발) △영차!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수업(참여와 소통으로 깨닫는 협력수업, 배움동행 멘토-멘티) △수업밀착형 과정중심 수행평가 정착 △연수 및 컨설팅 활성화로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교육으로 성장하는 학생(I)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과 교과 연계의 성장 프로그램 운영(해외자매 학교와 직접교류 : 호주, 대만) △외국어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아침방송 글로벌리더의 아침, 모이조이 Free Talking, 화상수업 실시,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 영어캠프 실시, 영어 Day, 중국어 캠프, 각종 경연대회) △자유학기제를 향한 첫걸음(학년별 심화 진로 프로그램 운영) △모두가 함께 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교사·학부모 연수, 꿈담이 플래너 제공 및 활용) △예술·스포츠 활동으로 감동 능력 성장 △지속 가능한 사랑과 평화의 학교를 위한 노력(교장선생님과 대화방, 점심시간 학생 밥 퍼주기, 학급중례신문, 학부모 보람교사, 가족봉사단, 선플캠페인)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이매중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것은 ‘마음발을 가꾸는 책 읽는 이매 교육’이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국어와 영어과에서 테마 독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북오름프로젝트(아침 틈새 독서활동 및 학급별 월 단위 운동), 글빛 밤샘 독서(연 2회), 북돋움 멘토-멘티(학부모 독서 멘토 활동) 활동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북주기 프로젝트(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독



서시간 확보, 독서·토론·논술수업 운영, 독서 포트폴리오 등)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과 공감 능력을 끌어올리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일반화 노력… 교육공동체 동반성장 꿈꾸다

특히,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율장학과 수업동아리 활동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을 통한 배움중심의 수업·평가 혁신, 국제이해 교류 활동, 전문가를 초빙한 맞춤형 진로탐색, 맞춤형 자기관리능력 신장,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토론을 비롯한 토의·토론식 수업의 강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키워내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실 있고 탄탄한 운영 방식은 학부



모들의 보람교사 활동을 확대하여 인근 학교에서 보기 힘든 적극적인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100대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교육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위해 꿈을 가꾸는 행복한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교사 모두가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지리적, 물리적, 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일회성·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지속 반복적으로 얻은 학습 결과물들을 일반화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떠올렸다. 이렇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정착과 교육과정의 정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소통의 배움 동행을 통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매중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①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보고서 쓰기 노하우

100대 교육과정 보고서 작성은 '꿈꾸는 학교(Curriculum), 행복한 교실(Student), 성장하는 나(I)'라는 비전에 맞게 실천한 세부적인 학습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성과정에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기본 교육과정편제 및 내용을 어떻게 수정 및 보완하여 편성했는가를 나타내었고, 운영과정에서 설문지나 각종 검사자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중간평가에 의해 수정·보완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교사별 교육과정, 수업밀착형 평가계획 수립, 자유학기제 기반을 마련하는 체험중심 활동의 세세한 과정과 특색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때 활동 목표 → 추진내용 → 성과 → 중장기 발전방향의 흐름이 일관성 있게 한눈에 파악되도록 작성하였다. 현재 추진한 내용의 장기적 추진 방향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과거 → 현재 → 미래의 지속적 변화 내용이 드러나도록 2~3년 정도의 과정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기적인 추진 로드맵과 결론을 함께 도출하였다. 실사 준비는 학교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의 내용이 보고서, 정보공시자료 등과 일치하도록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관련 공문, 사진, 데이터, 학습활동 결과물, 발간 자료 등을 영역별로 현장 확인 시 제시하였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이렇게 심사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비 수업-평가-활동 변화 집중 심사

중학교 심사는 학교의 구성원들의 특징, 지역적 환경 등에 맞게 특색있게 구성된 최적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았다. 2014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범적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교과에서 줄어든 수업시수를 감안하여 (핵심성취기준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음은 달라진 교육 현장의 모습이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한 자율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와는 달리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별로 수업 방법과 평가 혁신,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육 외적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교육력 낭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육과정 내에 프로그램들을 끌어들이 프로그램과 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지 관리자의 독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이해는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이매중학교의 경우 이미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100대 교육과정의 주요 심사내용에 맞춰 보고서 작성 시 스토리로 구성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교과 및 교사별 Self brand 개발, 교육과정 자료집을 발간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인성 중심 프로젝트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고, 창의성 수업, 즐거운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좋은 예를 보였다. 국어, 영어의 테마 독서 수업 및 활동, 북주기 프로젝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사례 '마음 받을 가꾸는 책 읽는 이매 교육'은 다른 학교에서의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향후에는 각 영역 및 항목의 연관성을 고려한 심사,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은 학교의 우수한 사례 발굴, 특색 교육활동 검증에 필요한 시·공간적 한계 등은 100대 교육과정 선정에서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작위적 용어 사용, 화려한 그림의 남발, 지나친 도표 사용, 미사여구 나열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요소는 공모에 응모한 학교들이 지양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②

2015년도 심사기준

2015년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주제는 '행복을 체험하는 학교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진행된다. 2014년도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보다는 '학교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우수 사례'를 가장 높은 배점으로 평가한다. 학교의 특색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계획, 실천, 운영의 성과, 향후 계획 등의 일반화 가능성에 중점을 둔 선정 기준에 따라 우수 학교가 선정됨을 향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을 통하여 모든 학교들이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향해 공교육의 신뢰를 쌓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며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전형요소 이해

최근 10년간의 대입제도를 살펴며

김두용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김두용입니다. 통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자녀교육'이라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대학 진학'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교육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언급되는 '사교육' 역시 궁극적으로는 대학 진학에서 내 자녀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기업화된 사교육기관의 마케팅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정부의 대입정책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무언가 이와 관련한 제도가 바뀌면 그 내용이 항상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특히 대입정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퍼진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인식입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른바 대입정책에는 '단골 고객'이 없음에도 준비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그런 비판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지난 10여 년간을 돌아켜보면 사실상 정책방향 차원에서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대입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전형요소를 사용합니다. 학생부, 전국단위 시험(수능시험), 대학별고사가 그것입니다. 이 중 어느 전형요소가 대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당연히 수험생들의 수험전략이 달라집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노력을 대입에 보다 유리한 전형요소를 준비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형요소는 각각 나름대로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우선 학생부는 무엇보다 평가의 주체가 학교의 교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가 대입에서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또한, 학생부에는 학생별로 최소 고교 3년 동안의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활동이 반영됨에 따라 다른 전형요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합적이고 풍부한 전형정보를 담고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 학생부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을 가집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학교 단위 내에서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학교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력차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학생부는 고교 3년간의 누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른바, '뒤늦게 공부철이 든 학생'이나 '재수 등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능시험 이에 비해 수능시험은 바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시험은 그 결과를 등급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조합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을 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력고사나 초기의 수능시험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전형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은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의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에 한정되더라도 평가의 주체가 학교 안의 교사가 아닌, 학교 밖의 전문가가 됩니다. 결국 수능시험이 대입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생활 보다는 수능시험을 잘 준비시켜 주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 입장에서도 학교 수업을 수능시험 위주로 진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밖에 수능시험은 학생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시험 도입 첫 해인 '94학년도에는 1년에 두 차례 시험을 치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수능시험의 복수 시행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연간 60만 명이 응시하고 그 시험을 위해 약 30만 명의 지원인력이 동원되는 국가적인 연례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복수로 시행할 경우 '2번의 기회가 아니라 2번의 고통'이라는 응시자 대부분의 호소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고사 마지막으로 대학별고사의 경우, 장점은 실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별로 그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인재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응시자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논술고사, 면접고사, 그밖에 다양한 형태의 자체 지필고사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별고사를 타당하고 공정하게 시행·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역량을 가진 대학은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논술시험이나 면접 등은 상세한 점수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몇 개의 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약해서 다른 전형요소와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의 주체가 고교 교사가 아닌 대학이기 때문에 대입에서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학교교육보다는 대학별 맞춤형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을 만듭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학교에서 다양한 대학별 전형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별고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전형요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의 주체가 고교 교사가 아닌 대학이기 때문에 대입에서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학교교육보다는 대학별 맞춤형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을 만듭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학교에서 다양한 대학별 전형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별고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전형요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입정책 패러다임 변화... 학생부 위주의 전형 강조

이처럼 세 가지 주요 대입전형요소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도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입전형을 한 가지 전형요소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전형요소의 평가주체가 누구이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어떠한지를 고려하면, 학생부가 수능시험이나 대학별고사에 비해 교육적으로 우월하고 바람직한 전형요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학생부가 주된 전형요소로 작용하고, 필요한 경우 수능시험과 대학별고사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입전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까지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시험 위주의 전형이 일반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의 학생부 위주 전형의 강조와 유도는 대입정책에 있어 하나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괄해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한 강조가 본격화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대학별 여건 조성에 주력했으며, 현 박근혜정부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집약하여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교육’과 ‘대입전형 간소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입정책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입에서 학생부가 강조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만 충실한 시행이 가능한 대학별고사를 별도로 하면, 수능시험 위주 전형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의 축적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능시험은 국가가 출제하고 응시자가 일부 비용을 내고 응시합니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그 결과로 지원자들을 뽑기 위해 별다른 추가정보나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부는 매우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것을 일일이 검토하고 해석

하는 데 전문가가 필요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과거 정보와의 비교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전자는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값싼 전형’인데 비해 후자는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싼 전형’인 셈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결단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부를 내실 있게 평가하고 전형결과와 관련정보를 축적하며 선발된 학생들을 추수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과 인력은 물론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체제 구축을 유도했고, 현 박근혜정부에서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대응투자와 전형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전형... 10명 중 7명 수시로 선발

금번 4월 30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학의 전형개선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수시모집의 선발비중이 약 70%로 증가, ②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 ③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선발체제 정착, ④ 논술과 적성시험 모집인원 감소, ⑤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지속 증가, ⑥ 수능에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첫 반영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부 위주 전형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고교와 대학의 협력에 기반 해서 이제 정착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 꾸준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정착단계에 있는 학생부 위주 대입전형체제의 틀 내에서 각각의 전형요소, 즉 학생부, 수능시

험, 대학별고사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하느냐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보다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한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각 전형요소를 평가하는 실제적인 내용과 방

식이 학교 현장에서의 활동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를 위해 고교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②

Interview 이순이 / 본지 기자

Q ■ 이번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7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앞서 대입정책 방향의 큰 틀을 설명해 주십시오.

A ■ 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수시모집은 70%, 정시모집은 30% 수준으로 수시는 학생부 전형으로, 정시는 수능위주의 선발로 전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가 자주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2008년에 학생부의 성적을 상대평가에서 등급제로 바꾸고, MB정부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교교육정상화지원사업이 도입됐지만, 이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그 안에는 학생부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가 대입에서 강조되면,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대학입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대입정책에 이러한 기초가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발표는 더욱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 대입 수시모집 비중은 올해(2016학년도) 66.7%에서, 내년(2017학년도)에는 69.9%로 증가했습니다. 대학들이 수시모집의 비중을 늘리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1997년부터 수시가 도입되었고, 10년 전만 해도 정시 비중이 훨씬 높았죠. 특정지역 학생을 제외하고는 정시를 선호했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정시를 선호했어요. 수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수시를 선호합니다. 10년을 거치면서 학생, 학부모의 바람이나 기대, 예상도 바뀌었고, 대학별 전형도 바뀌어왔습니다.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함으로써 이젠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Q ■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전형방식이 복잡해졌는데요. 이번에 대입전형간소화 방침은 어떤 의미입니까?

A ■ 대입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정도로 학생, 학

부모 입장에서 진학지도가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학부모나 선생님이 쉽고 간단하게 진학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학별로 전형이름이 다양하지만 종류별로 유목화하면 수시는 4가지, 정시는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때문에 전형을 유목화하고 전형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게 되었습니다. 대입전형간소화는 자율성이란 이름 하에 지나치게 다양화되었던 전형방식을 정상화시키고 정리하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Q 2017년도 대학입시에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국사 가 수능 필수로 지정된 것인데요. 학생들이 국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A 기존 수능에서 국사는 사탐 선택과목이었죠.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었는데요. 필수화되면서 절대평가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절대평가는 영어와 국사 두 과목뿐인데요. 국사 절대평가는 영어 절대평가와는 맥락이 다릅니다. 영어 절대평가는 영어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회화 등의 필요한 교육보다는 시험위주의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국사 절대평가는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사수능 도입이 새로운 학습 부담이나 사교육 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사는 절대평가(9등급제)로 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상위권 대학들도 3등급 정도를 받으면 만점으로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역사적 사실이나 맥락 등에 중점을 두고 출제할 것입니다.

Q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두고, 풍선효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A 수능은 60만 명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은 중간 수준에 놓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 몇몇을 두고 '난이도가 낮다', '변별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효과를 이야기할 때 '쉬우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현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지난해 수학 B가 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는데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진학지도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또 수능영어가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이 전년도에 비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궁금해 하는 분이 많지만, 올해는 특히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일정한 실력을 가진 아이들은 노력한 만큼 성적을 받도록 하겠다는 근본 취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Q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던데요.

A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응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시 지원을 6곳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곳에 합격해도 한 대학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수시의 경우에는 선납금을 내는데 이 또한 한 대학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에게도 연쇄적으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대입공통원서시스템과 대입정보 포털사이트(<http://univ.kcue.or.kr>)를 제공하고 있어요. 수험생의 지원현황을 조회해 볼 수도 있으며, 내년도 대학입학정보와 대학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입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고교현장에서 진로 진학을 맡아온 베테랑 교사 500~600명이 대입상담사로 위촉되어 있어 온라인 혹은 전화(1600-1615)로 입학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⑦

왜, 프로젝트 수업인가

왜, 프로젝트 수업인가?

이 질문에 답부터 하자면, 교사가 교과를 잘 가르치기만 하면 학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이 좀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열린교육 이후였을 것이다. 학교 밖 사회에서는 이미 학생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기대가 바뀌고 있다. 그들은 졸업 후 엘리트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에 지(知)위주의 학교수업, 즉 ‘교사가 ‘지식’을 ‘가르쳐 주면’, ‘학생’은 ‘배우고’, 배웠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쏟아내서 증명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교사의 가르침=학생의 배움’이라는 조건과 결과를 장치해 온 학교수업은 ‘학생의 배움을 따라 가며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과 결과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교사는 교과를 앞세운 수업방식에서 학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앞세운 수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곤혹스럽고, 불편하고, 낯설어 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의 유입과 확산

학교의 교과수업은 교과분과 수업(교과 시간에 주어진 교과의 내용을 교과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수업)과 교과통합 수업(기존의 교과를 재료를 학생에게 맞춘 새로운 임의의 교과를 만들어서 하는 수업)으로 양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법 등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수업은 학교의 교과분과 수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과통합 수

업의 편에 서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이다.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가 듀이(Dewey)와 킬패트릭(Kilpatrick)에게서 나온 이래로, 1930년대의 진보교육(The progressive education), 1970년대의 열린교육(Open education), 교육과정과 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관심, 또 영국의 플라우든 보고서(Plowden Report, Integrated day, Integrated curriculum, Informal education) 등으로 계승 발전해 왔다(Katz & Chard, 1979).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프로젝트 수업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열린교육을 즈음한 1990년 이후 유아교육 분야에서 시작해서 초·중등학교로 확산해 왔다. 특히 유치원과는 달리 교과가 엄존했던 초·중등학교에서는 일종의 교수법으로 혹은 교과서를 재구성한 주제 중심 수업의 한 종류의 의미로 최근 수업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

프로젝트가 학교교육에서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통칭, 프로젝트 수업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킬패트릭은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학습(공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법: 교육은 유목적적 활동이다』(1924)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로젝트란 학교의 수업이 학생에게 ‘목적이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학생이 자신의 실존하는 삶에서 설정한 목적을 이뤄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식 중 하나이며, 학생이 하

고자 하는 무언가를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수행하여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하고자 한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학습은 ‘~을 하겠다.’는 학생의 실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주도해 가는 학습이어야 한다.

둘째, 활동성이다. 학습은 활동이어야 하고, 학생이 사는 사회(환경)에서 하는 활동이어야 생산적이다.

학교교육은 ‘유목적적 활동이다(목적에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목적이 있는 행위가 가치 있는 삶의 전형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을 익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그 합의하는 내용과 방식이 다르지만,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형성해야 할 것은 그의 현재 및 미래 삶의 형식이며 양식이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생각, 아주 흔한 예를 들면, ‘옷을 만들어야겠다’, ‘학교 신문을 발간해야겠다’는 등의 실제 목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실제 목적은 개별적인 것 일수도 있고, 연극공연하기, 야구팀 조직하기 처

럼 집단이 함께 하는 목적일 수도 있다. 이런 실제 목적은 학생에게 학습할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

학교 공부 학생 자신의 실질적인 과업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교과교육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만으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학교 공부를 스스로의 과업으로 여길 때와 외부에서 주어져서 하는 것

으로 여길 때, 학교의 수업은 겉으로 보기에 교과를 배우는 것과 표면상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수업을 움직이는 내부 사고와 감정은 매우 다르다.

킬패트릭은 연을 만드는 두 소년을 비유로 설명한다. 여기 두 소년이 있다. 한 소년은 연 만들기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만들기를 한다. 또 다른 한 소년을 연을 만들어 날리고 싶어한다. 연을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이 소년은 이번에는 연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의욕적으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전념한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계속할 수 있는 내적 욕구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 목적은 적절한 지식과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눈과 손은 깨어있고, 계획과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고, 마음속으로 적절한 제안을 하고, 각 제안들 하나하나에 대해 그 적절함을 계속 평가한다. 날릴 수 있는 연을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은 만족을 경험한다. 이런 연속적인 만족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수업은 유치원과 달리 교과가 엄존했던 초·중등학교에서는 일종의 교수법으로 혹은 교과서를 재구성한 주제 중심 수업의 한 종류의 의미로 최근 수업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

두 소년의 '연 만들기'라는 활동은 같지만, 활동 과정 및 결과는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교육은 특히 교과교육은 학생에게는 무관심한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학교교육으로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학습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날 때 학생은 책을 덮으며,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 책이랑은 끝이구나!" 한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책을 싫어하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프로젝트는 이렇게 과제 제시형 교과 수업을 줄여주자고 제안한다. 학생에게 중요한 목적을 의식적으로 묵살해 온 학교 수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프로젝트 수업 준비과정

첫째,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면, 교사는 먼저,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실 주변에서나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사건, 사고, 에피소드들을 매개로 할 때 가장 실질적이다. 이것이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교사는 주어진 상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프로젝트 수업을 구안하게 된다. 여기에 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동안 가르쳐야 할 것을 적절히 연결하면서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단기 프로젝트, 모듈 프로젝트 또는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프로젝트 등 모든 프로젝트 수업은 완성도 높은 계

1단계: 주제 선정하기

2단계: 주제망 만들기

3단계: 가능한 교과 연결하기

4단계: 프로젝트 활동 결정하기

5단계: 프로젝트 수업하기

[그림] 프로젝트 수업 과정

출처: Katz & Chard(1979)

획수립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이때 학습게시판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학습게시판은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도 이를 첨삭 가능하도록 한 곳에 붙여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조사(investigation), 구성(construction), 놀이(dramatic play) 활동을 하면서 계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평가활동을 한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이 원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가면

서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학교에서 해 온 교과를 가르치는 수업과 다르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익숙한 수업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학교 수업을 통해서 창의성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살아 있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적인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⑦

참고문헌

Kilpatrick, W. H.(1924). The project method: the use of the purposeful act in the educative process.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Katz, L. G., Chard, S. C. (1979). Engaging Children's Mind: The Project Approach. NJ: Ables Publishing Corporation Norwood.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프로젝트 수업은 단지 하나의 학습방법이 아니다. 이는 교사의 역할, 학생의 역할, 수업에서 다루는 학습내용, 수업평가방법, 나아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환경까지를 포함한 교육 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프로젝트 수업은 우선 출발점부터가 전통적 수업과의 단절을 전제한다. 분절적 교과중심의 정돈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 학습내용과 달리 프로젝트 수업은 실생활과 학습의 연계를 추구하며, 복잡하고 비구조적이며 교과통합적인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교과서나 교사에 의존하던 단순한 학습자원은 다양한 자료(동영상, 뉴스, 신문, 영화, 책, 교사, 관련 외부인 등)를 포함한 학습자원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전달자의 역할과 달리 복잡하고 비구조적 실생활 관련 과제를 개발하는 수업설계자이자,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학생들의 학습진행을 도와주는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로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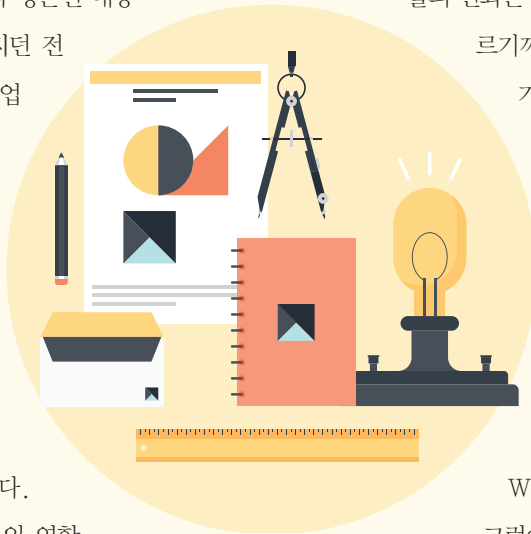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교사에 의해 정리된 학습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학생들은 실생활 관련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학습자원을 참조하며, 동료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탐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평가도 교과서에 국한된 내용의 이해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해결이라

는 학습결과와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학습과정도 평가의 대상으로 추가된다.

프로젝트 학습... 학습환경에 대한 총체적 변화

결국 프로젝트 수업을 채택함으로 인해 교사, 학생의 역할의 변화는 물론이고, 평가 방법이나 요소에 이르기까지 학습 환경에 대한 총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프로젝트 수업의 실천이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총체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를 둘러싼 주변 실천공동체의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한다(설진성, 강인애, 2013; Chan, 2014; Jung, Tryssenaar, & Wilkins,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업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의사소통력 등의 21세기 학습자 역량 함양을 위한 최적의 방식임이 여러 연구(강인애, 진선미, 여현숙, 2014)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재 여러 교육정책(예를 들어, STEAM 교육,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수업방식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인 현장 적용 및 확장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아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프로젝트 수업의 성패 ‘교사의 준비도’

그렇다면 프로젝트 수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프로젝트 수업 관련 많은 연구(Slattery & Douglas, 2014)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사의 준비도’라는 점이다.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학습론은 개개인 학습자가 지닌 선경험과 선지식으로부터 출발한 개별적 이해를 존중하며,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의 사회적 관계(소통, 협력적 학습, 토론)를 학습과정 및 지식 습득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러한 학습론에 입각한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을 단순히 특정 단계와 특정 학습전략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학습모형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근본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문제나 과제를 해결해가는 수업으로서, 학습과정의 중심이 학생들이 되어 그들에 의해 학습목표, 학습할 세부내용, 깊이와 방향들이 전개된다는 학습론에 굳건히 기반한다(Chan, 2014). 이는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기본이 되어 그들에게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활동은 가능한 억제, 인내하러 노력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수업설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필요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교사의 준비도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복잡하고 통합교과적인 프로젝트 과제를 만들 수 있는 수업설계자로서의 모습이다(강인애, 정득년, 정준환, 2007). 프로젝트 수업의 시작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맥락적 상황을 포함한 과제제시로부터 시

작한다. 실생활 연관이라는 것은 이미 그 과제의 성격이 매우 복잡하고 비구조적이며 교과통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제인가?(Wijnia & Loyens, 2014) 과제의 해결안이나 접근방안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과제의 특성이 통합교과적인가? 등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과제를 개발 또는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강인애, 정득년, 정준환, 2007).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무제한적 방법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제시된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해결을 위한 탐구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원도 미리 선정, 제시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활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과업 목표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루브릭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명확한 평가근거가 주어져야한다. 결국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수업환경을 철저히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젝트 수업은 수업설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요구한다(강인애 외, 2011).

또 교사는 모든 학습활동이 순조롭고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촉진자 역할을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①학습과정에 최소한으로만 관여한



다는 원칙(Mayo & Donnelly, 1995) 하에 학생들이 토론 중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모둠활동을 할 때 역할 갈등이라든지, 혹은 누군가는 소외되거나 또는 장악하는 일이 없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Chan, 2014; Slattery & Douglas, 2014). ②학생들이 위협이나 도전적인 상황을 감안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편안하고 개방적이며 위협적이지 않은 학습환경을 만들어 준다(Jung, Tryssenaar, & Wilkins, 2005; Viveka, Margareta, & Kristina, 2014). ③학생들이 과제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소위 메타인지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개방된 질문(specific and open-ended questions)들¹⁾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다(Mayo & Donnelly, 1995).

프로젝트 수업의 실천가로서 자기성찰 요구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교사로서 필요한 요소는 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자기성찰적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Jung Viveka, Margareta, & Kristina, 2014). 프로젝트 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력 함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습과정의 매 단계마다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 곧 학습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은 보통 성찰일지 작성이라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기성찰적 활동은 비단 학생에게만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필요한 활동이다.

실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프로젝트 수업 실천가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연구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결국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된다고 할 수 있다(Chan, 2014).

주목할 사항은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 수업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Jung, Tryssenaar, & Wilkins, 2005). 따라서 프로젝트 수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연수를 듣거나 또는 같은 관심을 갖은 실천 공동체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어느 것에 앞서 우선되어야할 점은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학습방식에 기반하는 학

결국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수업환경을 철저히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젝트 수업은 수업설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요구한다.

습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그럴 때 비로소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의 긍정적 학습효과를 넘어서, 학생들과 교사 모두 학습활동 자체에 열정과 흥미를 갖고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학습활동에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행복한 교육’은 어쩌면 프로젝트 수업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④

※ 참고 문헌을 웹진(happyedu.moe.go.kr)에서 확인하세요.

1) 예를 들면, 너가 생각해보지 못한 다른 가능성은 무엇인가? 너의 생각의 근거나 사실은 무엇이지? 너가 말한 것의 의미를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누가 정리 좀 해주겠니? 그 정보가 믿음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 자료가 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 과제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을 설명해 주겠니? 등과 같은 질문을 의미한다.

자투리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면 좋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만나는 사람들과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들어선 교실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과 친구가 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 속에서 웃음과 진지함으로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교실의 모습이 그 답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학교, 그런 교실이라면 교실에 들어서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에 찬 미소가 번질 것이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교사는 ‘이 곳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쌓여 있는 큰 자갈들 사이의 공간을 작은 모래들이 채워 나가듯 수업 시간 사이의 자투리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들을 채워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보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꿈 꾸기 - 꿈 스케치북

모든 교육은 진로교육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학생의 삶이나 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이야기들을 적어가는 도구로 ‘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꿈 스케치북’은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꿈 포트폴리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꿈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은 글, 그림, 사진 등을 말한다. ‘꿈 스케치북’에는 아이들의 삶과 꿈의 이

야기가 고스란히 담긴다.

꿈 스케치북을 작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연간 활동 목록을 준비하고 관련 수업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학생이 스스로 구성해나가며 꿈을 키운다. 꿈을 찾아가는 단계는 대체로 ‘자기 발견-인간관계-직업 정보-직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50개 정도 준비하여 한 주씩 주제를 바꿔가며 활동할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친교활동 - 학급 내 동아리

주로 아침 등교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학급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끄는 자치 활동이다. 동아리는 독서, 노래, 춤, 연극, 수집, 야구 등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끼리 모임을 조직하고 정한 활동을 같이한다. 동아리가 구성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를 최종 산출물을 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의 내용들을 일지에 기록하게 하여 교사가 활동 내용을 알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목표를 정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학교생활을 즐겁게 이끌 수 있으며 친목뿐 아니라 소질도 계발하는 효과가 있다. 동아리 활동의 산출물을 ‘학급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좀 더 진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놀이활동 - 실내 놀이

교실에서 잠시 짬이 나면 삼삼오오 모여서 노는 것이 ‘일’



이다. 놀이는 노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놀이 속에서 규칙의 중요성을 알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실천한다. 그리고 놀이를 만들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특히 실내 놀이 활동으로 자투리 시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신나게 놀 수 있다. 실내 놀이는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목록을 만들어 나가면 좋다. 하지만 처음에는 교사 주도로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이들 주도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활동 속에서 소외되거나 갈등이 되는 상황들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실내 놀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미니 올림픽 : 쉬는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교사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으로 미니 올림픽 종목의 목록을 만든다. 예를 들어 '멀리 날리기'를 주제로 정해놓고 멀리 날리는 물체를 고무풍선, 고무줄, 빨대, 종이비행기 등으로 바꿔가며 놀

이를 진행할 수 있다. '멀리 날리기'가 끝나면 '정확하게 날리기', '웁기기' 등으로 주제를 바꿔나가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미니 올림픽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것은 올림픽 시즌으로 학생들의 기분 전환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종목별 리그 게임 : 배구, 피구, 농구, 야구와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기들을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리그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구형 게임은 '실내 대장공 놀이'로 앉아서 진행할 수 있으며 배구형 게임은 '풍선 배구'로 풍선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실내 피구'는 탱탱볼을 이용하여 볼링을 하듯 바닥으로 굴리며 진행하고 육상 종목들은 규칙을 변형하여 친구들끼리 서로 돕는 구조로 진행할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 3분 정리 공책

'3분 정리의 시간'은 수업을 마치기 전 3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을 말한다. 이 시간을 확보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도울 수 있다.

수업한 내용을 3분 안에 순서대로 떠올려 보며 핵심 단어 중심의 마인드맵을 구성해보거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한다. 배운 내용을 순서대로 떠올려 보는 과정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거나 놓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이해한 대로 수업을 정리하며 복습하는 과정은 기억을 증기, 장기 기억으로 이어가게 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책 읽는 아이 키우는 영국 독서교육의 힘

어느 날 콩나물이 물을 먹고 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역량과 마음의 충만함을 키우는 것은 무엇일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필자는 그것은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라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독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어, 수학 공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습의 기초는 인성 형성과 사고력 향상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독서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책 읽기가 습관화되고, 그 책 속에서 들어 있는 양분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성인이 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과거보다 책 읽기를 강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에게도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관·민의 단, 중, 장기 정책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부의 적극적인 독서 정책과 민간기관의 지원이 합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영국의 독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김순남 외, 2012:326-351 요약하여 제시),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독서교육 정책 지원

영국 정부는 영어 교육과정에 읽기 달성 목표를 '언어사다리'라는 것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읽기능력 미흡학생에게는 읽기능력회복 중재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읽기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비교원에게도 읽기능력 전문 역량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국민독서의 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영어 교육과정은 국민이 공교육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침으로 필수 과목과 달성 목표를 제시한다. 이 중에서 읽기의 달성 목표는 다양한 언어 능력 성취도를 승인하도록 개발된 언어사다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영국의 학교가족어린이부는 국가 중재 전략으로 모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ECaR(Every Child a Reader)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전국의 5~6세 아동 중 하위 20%의 아동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전국의 하위 5% 아동들에 대한 읽기 능력 회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에서 각 학교가 초기 읽기 중재인 읽기능력회복의 전문교사를 고용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 영국은 정식 교사가 읽기 교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추가적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읽기능력회복교사는 선정된 읽기 부진 학생 각자의 필요성에 맞추어 30분간의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는 훈련을 받고, 담임교사, 수업 보조 인력, 부모를 포함해 아동의 문식성 책임자들에게 조언을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영국의 예비교원 연수 상황을 보면, 언어 관련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읽기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기술이 교내 배치 기



읽기능력 미흡학생에게는 읽기능력회복 중재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읽기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비교원에게도 읽기능력 전문 역량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국민독서의 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간에 연습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과목에 필요한 읽기에 도달하도록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예비교사 교육의 과정에서 표준화된 읽기 테스트를 수립하였고 교사들은 자신들의 읽기 능력 교수에서의 전문적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영국 정부는 국민독서 해를 지정하여 독서 문화를 촉진시켰다. 영국은 국민 독서의 해를 1998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제정하였다. 이는 독서 진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독서력의 증진이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기관도 나서 독서 활성화 지원

영국의 민간기관의 독서 지원은 북스타트 운동, 북페스티벌, 리딩 더 게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민간기관의 북스타트 운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로 모든 유아와 아동에게 무료로 책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독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자극하며, 자녀의 초기 읽기 및 이후의 학습을 위한 기반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책 선물 프로그램이다. 비영리단체인 북트러스트에서 시작하였으며 예산을 지원받아 선물가방을 구입하여 지역의 유아들에게 가방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 여기에는 '아이와 함께'라는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정보, 두꺼운 종이로 만든 2권의 유아도서, 지역도서관 안내 자료, 지역도서관 안내카드, 열쇠고리, 3개의 작은 북마

크, 시가 코팅된 판 등을 여덟 가지를 담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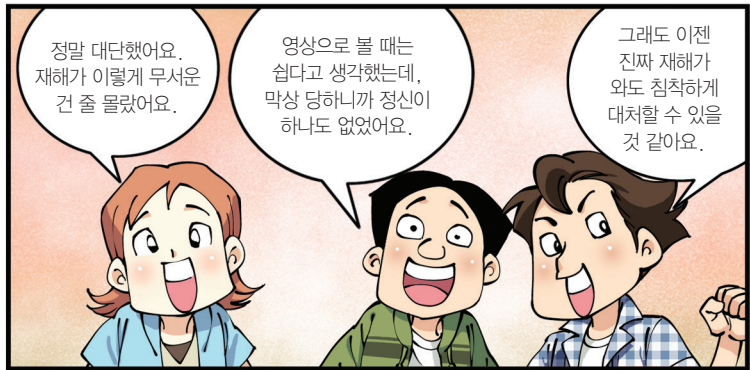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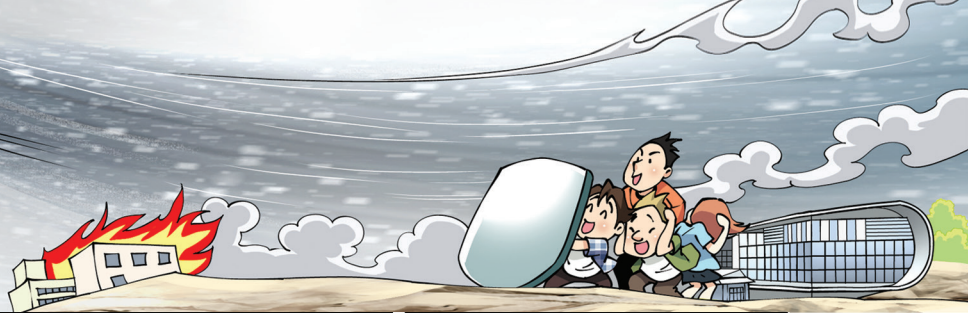
다음으로, 민간기관의 북페스티벌과 리딩 더 게임도 있다. 영국에서는 북페스티벌인 책잔치가 많이 열린다. 북페스티벌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며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페스티벌도 40여 개 된다. 또한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추진한 것으로 책 읽기를 꺼려하는 남아아이를 위한 '리딩 더 게임' 프로그램도 소개할 만하다.

이상의 영국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정규교육과정에서 모든 교사가 독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교과독서라는 이름으로 정규 교과목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독서능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영어, 수학 부진아 지도는 많아도 진정 필요한 독서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주기적인 국민 독서의 해 지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넷째 북스타트 운동처럼 민간기관의 독서 활성화 사업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근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인성교육의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⑦

참고문헌

김순남 외(2012). 초·중등학생의 독서 실태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12-20.

안전체험학교 운영



여기서 잠깐!

안전체험학교는 체험관과 교육청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학생들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각종 안전훈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7대 안전교육 표준안(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인터넷 중독/재난/직업/응급처치)과 체험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체험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종합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119시민안전체험장 등 3개 종합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학교'로 선정,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안전체험학교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각종 안전을 체험하게 되며,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종합안전체험시설 : 광나루안전체험관(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서울), 어린이안전교육관(서울), 119시민안전체험장(부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대구), 119시민체험센터(대전),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강원), 충북도민안전체험관(충북), 어린이안전체험관(충북), 전북119안전체험관(전북) 10개소(안전체험학교 3개소)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탐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의 달인, 김종우 선생님

‘체육교육 연구소장’이란 닉네임으로 불리는 체육교사가 있다. 구일중학교 김종우 교사다. 그는 체육교사 외에도 다양한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장학자료개발위원(2009~2012), 서울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단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평가위원, 교육부 학교체육활성화창의경영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창의경영학교 컨설팅위원 등 다양한 역할들을 맡고 있다.

김 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서울시 남부교육청에서 줄곧 교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학생들의 체육교과 학습참여를 향상시키려고 고심하던 중 스포츠클럽문화의 이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 관내의 체육교사들과 의기투합하여 지역교육청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의 모태가 되었다고 말한다.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당일에도 ‘스포츠클럽리그 대가’답게 교내 리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점심시간을 10분 연장(기준 50분)하면서 시행한 리그전은 재학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인근 중학교에도 입소문이 나자 덩달아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 교사는 서울시 학교운동부 육성전략인 ‘앗새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여학생 학교체육을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학교체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글_ 이병구 / 명예기자(서울특별시체육회 학교체육팀)

차의과학대, 고령사회 융합 전문 인재 양성

지난 4월 21일 차의과학대학교(총장 이훈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5년도 '친고령 특성화 대학원' 설립 지원 대학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문제 등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전문 인력은 미미한 상태였다. 차의과학대는 이번 대학원 설립을 통해 고령화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고령자 대상 서비스 컨설팅 인재 양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5년간 27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과 46억 원의 차의과학대 대응투자를 통해 약 100여 명의 석·박사급 고령친화 전문 인력을 전액 국비장학금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차의과학대 홈페이지(www.cha.ac.kr) 또는 대표번호(☎1599-2010)로 문의면 된다.

글_ 박원태 / 명예기자(차의과학대 학생)

함박웃음 나누리 자원봉사단 발족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한 초·중학교 학생 80명은 지난 4월 18일 '제4기 함박웃음 나누리 자원봉사단 발대식' 참석을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수영구청 2층 구민홀에 모였다.

'함박웃음 나누리' 자원봉사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한바다중, 동아중, 동수영중, 부산수영중, 망미초, 수영초등학교) 6개 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2012년 제1기 함박웃음 나누리 자원봉사단 발대식 이후, 3년 동안 432명의 학생들이 함박웃음 나누리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뜨래, 노인, 내 고향(지역), 글로벌'이라는 4가지 테마를 가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그동안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평화 캠페인,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캠페인, 독거노인을 위한 손지압 봉사활동, 아프리카 등 제3국 어린이를 위한 실내용·티셔츠 보내기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제4기 함박웃음 나누리 자원봉사단은 2기 발대식을 통해 자원봉사자 기초 교육 이수 후, 한 해 동안 매월 세 번째 토요일이 되면 생명존중 심폐소생술 교육, 노인을 위한 손마사지 사랑 나눔 활동, 이웃사랑 김장김치 담그기 활동, 제3국 아이들을 위한 티셔츠 보내기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글_ 박은희 / 명예기자(한바다중 교육복지사)

T.E.T 트레이너 박종근 선생님

“선생님들의 행복을 꿈꿔요”



학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T.E.T 프로그램으로 한 발짝 선구적 움직임을 시작한 박종근 대전관평초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Q T.E.T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 교사역할훈련(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이하 T.E.T)은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저명한 칼 로저스(C. Rogers) 박사의 제자인 토마스 고든(T. Gordon) 박사가 고안한 대화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음결 나눔 바자회 속으로

목포해인여자중학교(교장 김무순)는 지난 5월 17일 교내에서 제2회 마음결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지역 내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기 위해 열린 이번 바자회에는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헬로비전 호남방송)까지 동참하여 더욱 풍성하고 알찬 바자회로 진행되었다. 사실 해인여중의 마음결 나눔 바자회에는 다른 바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별함이 있다. 첫째, 자발성이다. 작년 5월 한 달간 세월호관련 융합교육을 받은 해인여중 학생들은 교육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지식” 실천으로 세월호 추모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였다. 둘째, 연계성이다. 제2회 마음결 나눔 바자회 소식을 접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고, 이로 인해 바자회 장이 확장되었다. 셋째, 다양성이다. 참여자들도 다양했지만 기부 형태도 다양했다. 자신이 쓰지 않는 옷이나 물건을 내는 물품 기부, 바자회 물품을 사기 위해 품을 사는 돈 기부, 바자회 가게 운영, 행사 진행, 먹거리 준비 등의 재능 기부 등 여러 모습으로 기부에 동참토록 하여 참여자들이 보다 즐겁고 다양하게 기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긴 시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준비한 행사였던 만큼 참여한 이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기부금 전액(392만 원)은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하며, 남은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한다. 김무순 교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참여하여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감동을 해인여중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비쳤다. 과연 해인여중의 고운 마음결 행진은 어디까지 이르게 될지 기대된다.



글_ 손균욱 / 명예기자(세종연동초 교사)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0여 개 국가의 교사들이 T.E.T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06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20,000명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총 24시간 3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시·도 연수원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학교에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Q T.E.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제가 처음 T.E.T를 접한 것은 2009년 교사가 된 이후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때입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방법만 조금 바뀌면 학생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적용한 후 신뢰를 갖게 됐고, 학교로 돌아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았고, 저 역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출근하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이후 T.E.T 워크

숍을 수료하고 강사과정을 거쳐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T.E.T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T.E.T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 T.E.T는 교사와 학생 중 누구도 권력의 우위에 두지 않고, 양쪽을 모두 동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동시에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가르치는 교실에는 상벌점 제도가 없습니다. T.E.T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꾸준히 어필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굳이 상벌이 없어도 스스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진 점을 T.E.T의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글_ 정지민 / 명예기자(이화여대 학생)

중앙선도교사의 땀으로 만든 세계시민교육 전시회 성황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세계교육포럼이 열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각 시·도의 세계시민교육 사례와 전시부스가 운영되었다.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와 교육부가 주최하며 전 세계 195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룰 세계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국제회의이다. 세계교육포럼 기간 중 개최된 세계시민교육 전시회는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다양성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는 세계시민교육 및 학교 활동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학교 현장에 널리 확대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이번 전시의 중요한 활동 주체인 각 시·도 ‘중앙선도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 전시부스에서 세계 시민교육 우수사례와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실천해 온 산출물과 지도 자료를 전시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하는 교육을 알렸다. 이들은 1월부터 연구회로 조직되어 꾸준히 시·도 간 자료를 공유하고 이번 전시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훈훈한 교사 활동을 펼쳤다.

인천 중앙선도교사 김민경 교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실천한 우수사례들을 소개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를 배우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_ 이규배 / 명예기자(성환초 교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행복교육현장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천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제1회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는 ‘삶이 있는 교육, 행복한 학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관계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모일 정도로 열기가 후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환 순천대학교 교수는 학생자치활동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자치활동의 장벽은 경쟁과 획일화가 지배하는 학교 문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학교 스트레스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 해결책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한 예로 핀란드(갈레반 고등학교)는 체험적 공동체를 강조하고 학생이 자신과 남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자치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현장 사례발표에서는 장효범 서울선곡초등학교 교장이 배려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학교 소통문화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만나면

사례 간에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를 외치고, 토론중심의 학생자치 회의 활성화, 공감 중심의 학생자치 스포츠동아리 운영 등 바른 인성지킴이 활동을 통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이끈 사례를 소개했다. 중등 현장사례를 발표한 황인정 인천 옥련여자고등학교 교사는 감동을 주는 참리더, 학교생활 규칙 제·개정, 학생자치법정, 학생이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찾는 자율동아리를 안내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생, 학부모도 패널로 참석해 학교자치생활이 입시제도와 학교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발전 방안으로는 학생자치 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방법도 제안됐다.



글_ 백희 / 명예기자(학부모)

책 읽어주는 아빠

함양 병곡초등학교
(교장 여춘호)는 지난
5월 13일 아침활동시
간에 책 읽어주는 아빠
활동이 이루어져 아이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병곡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부터 '등나무 학부모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모여 한
달 동안 읽은 책에 대한 토론은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
를 서로 교환하면서 알찬 시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책 읽어주는 부모님' 활동은 학부모들 스스로가 자
녀들을 위해 뜻있는 활동을 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작년 9월
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주로 엄마들만 참여하던 활
동을 올해에는 아빠들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병곡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빠의 무뚝뚝하지만 진한
정을 느끼게 해 줄 목적으로 이번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는
데, 예상외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아이들이 아빠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글_ 김철수 / 명예기자(창원남산고 교사)

하늘과 우주를 향한 무한한 꿈

지난 5월 16일, '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가 총
북 청원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자
유 비행(고무동력/글라이더), 물로켓, 무선 조종, 항공 인문
(백일장) 등 4개 종목에 약 9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
생 및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특히, 2014년 시범종목이었던
실내 무선 조종 부문이 올해부터 정식 종목으로 변경되어 종
목 수가 늘고 대회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 대회는 '한국항공소년단'에서 주최·주관하고, 대한민
국 공군,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항공우주산업(주),
대한항공 등 1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각 부
문별 최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산업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공군참모총장상 등이 주어졌다. 주최·주관 기관인
'한국항공소년단'은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무한
한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국
내 항공우주 관련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과 대한민국 공군
이 뜻을 모아 2005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특히 다양한 항공 축제와 캠프, 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
이 항공우주과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
리아컵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의 취지 또한 미래 항공우주
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기초 항공과 우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글_ 조익형 / 명예기자(한국모형항공협회 이사)

아버지 순찰봉사단, 안전 이상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호암초등학교(교장 조
순화)는 4월 8일 저녁 6시 본교 교장실에서 2기 호암아버지 순찰
봉사단(꿈나르미 학부모보안관, 25명) 결단식 및 정기협의회를 가
졌다. 호암아버지 순찰대는 2014년 7월 10일, 아버지들이 중심
이 되어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로서 방과 후 우리학교 밖 안
전을 지키는 꿈나르미 학부모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사성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찰 활동으로 2015학년도 2기 순
찰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1기 순찰대의 구성원이 아버지가 주축이라면 2기는 어머니도
동참하기를 위해 참여기로 하였다. 1기 호암아버지 순찰단 16명
에서 시작된 봉사활동은 2기 25명으로 신입회원을 모집하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늦은 8시부터 9시 반까지 4인 1조가 되어 학교
운동장, 학원 주변, 공원 등을 순찰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있다.

글_ 이하성 / 명예기자(사)한국미술협회 함안지부 지부장



진로교육지원센터 4개소 본격 가동

지난 4월 30일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너울' 개소식이 열렸다. 이로써 해운대구(드림누리), 사하구(꿈꾸락), 사상구(행진)와 더불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올 한 해 계획했던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4곳이 모두 개소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문을 연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2~3층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하여 조성됐다. 센터 내·외부에 상담실, 창작 공예실, 영상실, 실용 음악실, 휴게 공간, 수영장, 숲 체험 공간, 야외 운동장, 세미나실, 대강당 등 공간을 확보하여 학교 급별 진로직업체험을 가능하게 했다.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4개소는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학생을 위한 진로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처와 일터 멘토 발굴, 학교와 체험처 간 매칭 역할, 진로진학 설명회 및 상담, 진로상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한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시청 및 구축되지 않은 구청과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2016~2017년에 3곳, 2018년 2곳 등 4년간 12개 이상의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지역 연계 진로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아주 특별한 운동회

“벌써 3년째, 우리 아~~들하고 3대(代)가 이래 운동회 하는 거 아입니까?”



함박웃음을 머금고 할배, 할매가 손자, 손녀와 공굴리기에 나선다. 아이들은 새끼도 꼬아보고, 인절미 만드는 찰떡쿵떡 체험도 하고, 지계를 지는 체험도 하는데, 할배, 할매의 훈수가 오늘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지난 5월 1일(금)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자리 잡고 있는 금포초등학교(교장 신재진) 운동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운동회가 열렸다. 전교생 89명 외에도 26명의 내일학교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운동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내일학교'는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중등 학력인정 문자해독 교육기관으로 '배움엔 마침표가 없다'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학교이다. 내일학교 어르신들은 비록 친손자, 친손녀는 아니지만 교실을 함께 쓰고 있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가족 같은 모습으로 운동회에 참여했다.

운동회에 참여한 내일학교 정무순(78) 어르신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해 운동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일학교에 다니면서 소풍도 가고,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운동회도 해 본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제10회 울산과학기술제전 성황

울산광역시교육청은 5월15일~17일까지 울산과학관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울산시가 후원하는 '제10회 울산과학기술제전'을 개최하였다.

울산과학기술제전은 지난해부터 울산수학축제와 통합하여 열리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알아보는 한 마당이다. 올해 주제는 '무한상상으로 미래를 꿈꾸다!'였다.

행사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제34회 스승의 날에 열리게 된 울산과학기술제전은 기존의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열렸던 개막식 행사를 테이프 컷팅식만으로 의전을 간소화하고, 테이프 컷팅식 이후에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헬리캠) 시연행사를 가지는 등 소통하고 참여하는 참여자 중심의 축제가 되었다.

정서 치유를 위한 ‘Tee센터’ 개소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1일, 에듀힐링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학생·교원·학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한 구체적이며 총체적인 전국 최



초의 시도이다. 에듀힐링센터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심리상담·정신건강을 지원하여 개인의 절대행복을 지향하는 「마음단단 프로젝트」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음단단 프로젝트」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대전시교육청의 인성·감성교육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Wee(Wee education emotion)센터’에 올해부터 운영하게 될 ‘Tee(Teacher education emotion)센터’와 내년부터 운영할 ‘Pee(Parents education emotion)센터’를 합하여 ‘에듀힐링센터(Education Healing Center)’를 구축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학생은 Wee센터에서 꿈과 희망을, 교원은 Tee센터에서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는 Pee센터에서 만족과 행복을 갖게 되어 행복한 대전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11일 개소한 Tee센터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살피고, 나누고, 다지는 공간으로 선생님들의 심리상담·정서치유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Tee센터에서는 선생님의 내면적 성찰과 인간적 성숙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Tee센터를 이용하려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Tee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면대면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상담은 학기 중에는 월~금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같은 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어르신 공부는 우리가 책임져요”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도우미가 돼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는 어르신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방송통신중학교(원주중, 남춘천중, 강릉중)에는 만학의 꿈을 이루려는 어르신 270명이 입학해 공부를 한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마음과 달리 공부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원주중 방송통신중학교 흥주의 교무부장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학생도우미를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하나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한 달에 두 번은 학교에 나와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이 옆에서 도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우미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 좋고요.”

원주중학교는 곧바로 학생도우미를 모집하고, 32명(원주중학교 수석동아리 학생 20명, 원주시내 고등학생 6명, 원주중 교직원자녀 4명)을 뽑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르신들은 서로 도우미 학생들에게 공부를 배우려고 난리가 났다.

도우미로 활동 중인 원주중 3학년 김승하 학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재미있고, 뿌듯하다.”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시니까 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했다.

원주중학교에서 학생도우미가 좋은 반응을 얻자 남춘천중학교 역시 학생도우미 52명(강원고 18명, 춘천고 2명, 춘천여고 1명, 남춘천중 32명)을 뽑고 어르신들과 멘토-멘티를 맺었으며, 강릉중학교도 학생도우미 모집에 나섰다.

한편, 학생도우미에게는 하루 봉사한 시간만큼 봉사활동 점수가 부여된다.



신설학교 개교 1개월 전 마무리

“개교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5월 15일 오후 2시 본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신설학교 공정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경남교육청, 시설감리단, 신설학교 시공사 대표·현장소장 등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에 개교되는 신설학교의 원활한 공정관리로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과 함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

는 신설학교 개교 지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현재 경남에는 올해 9월 중학교 1개교를 비롯해 내년 3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등 모두 11개의 신설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창원 사립초등학교 등 11개교 시공사 대



표·현장 소장 등과 개교 전 공사완료를 위한 협의와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 및 해결 방안 등 공사 진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명관이의 43만원, 충남학생을 움직이다

충남 보령명천초등학교(교장 나상무) 6학년 송명관(13)군의 네팔 지진피해 성금 선행이 충남도교육청을 움직였다.

지난 5월초 송명관 군이 초등학교 6년간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네팔 지진



피해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하기로 결의한 것.

지난 5월 3일 충남 보령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3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제 30회 충남 어린이날 큰잔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송 군은 행사장에 김지철 교육감에게 자신이 각종 글짓기 대회에 출전해 받은 2~3만원씩의 상금 43만원을 모

아서 이날 성금으로 기탁한 것이다. 송 군의 어머니는 “명관이가 네팔 지진 참사 뉴스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어린이날 행사장에 가면 모금함이 있을 테니 그곳에 넣겠다면서 그동안 받은 상금을 달라고 하여 준비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막상 당일 행사장에 도착해 보니

모금함은 없었다. 그러다가 운동회에서 만났던 김 교육감을 다시 만나면서 가지고 갔던 성금 봉투를 행사 참석차 현장에 있었던 교육감에게 전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삼교고등학교 2학년 최혜민 양은 5월 9일 개최된 '2015학생 원탁토론회장'에서 송 군의 미담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남 도내 학생회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며, 만장일치로 모금운동을 결의하였다. 송명관 군의 선행이 전체 충남 학생들을 움직인 셈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금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학생과 교육감과의 공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과 이석문 교육감과의 공개 토론회 '학생은 말한다'를 마련했다. 과거에는 주로 고등



학교 학생회 간부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됐지만 이번 행사는 초·중학생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 간부만이 아닌 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개 토론회는

5월 4일 제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월 12일 중문중, 5월 13일 조천중, 5월 20일 제주고와 삼성여고 등 초·중·고 5개 학교에서 열렸다. 제주초에서 열린 대화에서 6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꿈 이야기와 평소 제주교육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한편, 중문중 및 조천중에서 이어진 중2 학생들과 대화에서는 고등학교 진학 등 미래에 대한 논의 등도 이뤄졌다.

금강의 뿌리를 찾아가는 문화 기행

한솔고등학교(교장 김상학)는 극기심과 애항심을 함양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2박 3일간 2학년 전교생 193명을 대상으로 충청 일원을 따라 서해로 흐르는 금강변을 걷는 금강탐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한솔고의 금강탐사는 '백제문화기행 금강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원거리 수학여행보다는 지역 향토탐방으로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솔고는 학교가 개교한 다음 해부터 시작된 금강탐사를 학교의 전통과 문화로 매년 계속해 이어나갈 방침이다.

올해 금강탐사에서 학생들은 서천 신성리 갈대밭에서부터 대전에 소재한 대청댐까지의 금강 주변 둘레 길을 걸으면서 부소산성, 무령왕릉, 공산성 등의 교과서 속 백제문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아울러 단체생활을 통한 규칙과 질서의 공동체 의식도 함께 키웠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제3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4월 20일, 충청북도교육청 내 '어울림방' 카페가 문을 열었다.

어울림방 카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왔으며, 2억 2천여만 원을 들여 도교육청 행복관 1층에 96m² 규모의 카페를 조성한 것이다. 청주성신학교 전공과 학생 4명이 2개조로 나누어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바리스타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와 함께 각급학교

내 일자리 사업으로 선발된 특수학교(급) 전공과 학생들이 음료제조, 주문, 서비스 상품관리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바리스타로 일하는 지적장애 학생들은 맛 있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꿈을 키우며 지난해부터 성신학교 전공과 식품가공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해 열심히 준비해왔으며, 카페로 출근하는 매일매일이 너무 긴장 되고 떨리지만, 재미있고 행복한 마음이 훨씬 크다고 입을 모은다.



어울림 방 카페는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장소로 사용되며 특수학교(급)에서 직업교육을 통

해 생산하고 있는 비누, 목공예품, 쿠키, 양초, 스카프, 손수건 등 다양한 상품도 전시 판매하여 특수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홍보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특히, 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의 20%는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

푸른 자연이 손짓하는 유월, 생태체험 떠나볼까

더위가 성큼 다가왔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주말 동네 놀이터는 아이들로 북적이다. 자연이 함께 놀자고 손짓을 하듯 푸르다. 화석 도심 속 학교와 학원에 지친 아이들에게 녹색의 자연과 뛰어 놀 수 있는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부모나, 생태체험을 계획하고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 6~7월 가볼만한 생태학습관과 현장체험학습장을 소개한다. 북적이는 여름방학이 다가오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자.

국립생태원_ 개미과학자로 변신!



국립생태원

과학적 호기심이 가득하고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국립생태원을 추천한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개미과학자'로 떠나는 '개미 세계탐험전'을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개미 8종과 흰개미 1종, 벌 2종 등 모두 11종의 개미가 전시중이며, 6월 중 해외개미 6종이 추가로 들어온다.

개미과학자에서는 개미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구에서 실험복을 지급받아 직접 개미과학자의 업무과정을 가상체험해 보고 개미 생태를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구성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국립생태원은 개미 전시뿐만 아니라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해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

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태연구, 전시, 교육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다양한 수준별 맞춤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유아부터, 초~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가족프로그램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위치_ 충청남도 서천군 / 홈페이지_ www.nie.re.kr

서울길동자연생태공원_ 반딧불이 반딧불이를 만나요

반딧불이를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서울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는 6월 중 반딧불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야간탐방과 함께 반딧불이 생태교육을 진행한다.

반딧불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야광 곤충으로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일명 '개똥벌레'라고도 불린다. 일년 중 오직 6월에만 체험할 수 있는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해 보자.

아울러 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는 5월부터 토종벌 체험도 진행 중이니 낮에는 벌, 밤에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다. 반딧불이 야간탐방은 출몰시기에 따라 6월 중 약 보름간 진행되며, 토종벌 체험은 매주 토요일 시간대별로 진행하고 있다.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되므로 반드시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예약해야 한다. 체험비는 무료다.

위치_ 서울 둔촌동 / 홈페이지_ http://parks.seoul.go.kr/gildong



서울길동자연생태공원

화포천습지생태공원_ 물속 곤충은 뭐가 있을까



화포천습지생태공원

땅 위에는 개미가 기어 다니고, 풀숲에 나비가 날아다닌다. 그런데 물속에도 곤충이 산다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에서는 6월 한달 동안 수서곤충 생태체험학교가 열린다. 생태지도사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화포천습지에 서식하는 잠자리애벌레, 게아재비, 장구애비 등 수서곤충을 직접 채집해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으며, 채집한 곤충의 생태에 대해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이 매일 진행된다. 체험프로그램은 평일 단체와 주말 가족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하루 2차례 진행된다. 반드시 홈페이지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7월에는 모내기가 끝난 논습지에 사는 곤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위치_ 경남 김해시 / 홈페이지_ <http://hwapo.gimhae.go.kr>

소래습지생태공원_ 갯벌에서 방게와 숨바꼭질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무료로 갯벌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공원에는 천일염 체험 및 습지 내 사는 동물과 식물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과 갈대, 풍차, 산책로도 마련돼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주중 하루 세 차례 해설사가 동반한 갯벌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전시관 내부와 갯벌체험장, 염전을 모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6월에는 2일부터 10

일경까지, 18일부터 24일경까지가 갯벌에 물이 적당히 차게 되어 갯벌에서 놀며 방게 잡기를 체험할 수 있다.

위치_ 인천시 논현동 / 홈페이지_ <http://grandpark.incheon.go.kr/posts/945/1379>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_ 여름 생태체험학교 가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여름 방학을 맞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초등학교 가족을 대상으로 민물고기 여름 체험학교를 운영한다.

황쏘가리와 여름치 등 천연기념물과 쉬리, 동자개, 통가리, 꺾지 등 다양한 민물고기 어종을 볼 수 있으며, 생태학습관은 물론 야외사육지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서 물고기 먹이주기, 수족관 청소하기, 철갑상어 만져보기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특별한 체험이 준비돼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초등학교를 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월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대상자는 30일 발표된다.(단, 경기도내 거주 초등학교 가족 우선 참가)

위치_ 경기도 양평군 / 홈페이지_ <http://fish.gg.go.kr/>

이 밖에도 서울시에만 2천개가 넘는 공원에서 100여 개의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민물고기 터치풀 체험장을 상설 운영(단체만 가능)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별로 다양한 생태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 동네에는 어떤 생태체험 학습이 가능한지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듯하다. ㉠

아이와의 언쟁, 피해야 할까요?

A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은 무엇일까? 아이를 다 키워낸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아이와 말싸움하지 말라'는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가 많다. 말싸움은 그야말로 백해무익하다. 말싸움을 하면 무엇보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다. 싸움은 대등한 사이끼리 하는 것이기에 아이와 말싸움을 하는 순간 부모의 위치는 아이와 대등한 수준으로 내려간다. 아이들은 이것을 바라기에 적잖은 아이들이 일부러 말싸움을 유도한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아무 얻는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옷도 안 갈아입고 소파에 퍼져있다. 부모는 한 마디 한다. "옷부터 좀 갈아입고, 손발도 씻고 그래야지." 아이는 바로 받아친다. "아이 씨, 맨날 잔소리. 정말 짜증나." 이것은 아이가 일부러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왜 그럴까? 싸우고 싶기 때문이다. 싸우면 기분이 풀릴 것 같고, 부모한테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분 나쁜 감정을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쓰레기에 비유하자면 쓰레기가 손에 있다면 쓰레기를 잘 버리면 될 텐데, 아직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아이는 모른다. 그래서 부모에게 넘긴다. 자신의 기분이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 부모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아이가 던진 쓰레기를 받아주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는 슬쩍 피하는 방법이 있다. 또



쓰레기를 받아주는 방법은 아이가 던진 쓰레기를 받아서 함께 깔끔히 처리하는 것과 아이가 던진 쓰레기를 아이에게 다시 던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자신이 받아 안고 처리하지 못한 채 공공 앞거나 남편이나 아내 등 다른 가족에게 던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기술이기도 하다. 기술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다.

아이 스스로 불편한 감정 처리해야

최악의 경우는 아이가 던진 쓰레기를 다시 아이에게 던지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맞서 싸우는 방법이다. "너 말 버릇이 그게 뭐야." "아니 엄마가 틀린 말 했어. 한두 번 말할 것도 아닌데 맨날 집에 들어오면 씻지도 않고 말이야." 그 다음에 보일 아이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 "지겨워. 진짜 지겨워."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과장하는 건 정말 세상에서 최고야. 잘한 것은 기억도 못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지." 이런 말이 한두 번 오가면 이제 이성 사라지고, 집안은 전쟁터로 변하기 마련이다.

다른 선택도 있다. 예를 들어 "어이쿠, 우리 딸 오늘 완전 짜증났나 보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네. 엄마는 도망가야겠다."하고 웃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그 정도가 무리라면 아이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한번 웃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눈빛만 아니면 된다. 이걸 비겁하게 도망가는



서천석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중 어른들이 알고 있는 마음속 병의 뿌리가 어린 시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소아청소년정신과 과정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하루 10분, 내 아이를 생각하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등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을 돕는 한편, 좌절하고 상처 받는 부모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습은 아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아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질 수 있다. “우리 딸 오늘 기분이 짱이네. 무슨 이유일까? 엄마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데.” 주전부리라도 들고 와 “기분 나쁠 때는 달짝지근한 게 최고더라.”며 이야기를 건다면 좀 더 부드러울 수 있다. 이 방법은 아이가 던진 쓰레기를 아이와 함께 깔끔히 처리하려는 태도다. 다만 이 방법은 상당한 에너지가 들기에 부모가 컨디션이 좋을 때 시도해야 한다. 부모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도 아이는 계속 싸우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면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한 부모들이 참아내기란 쉽지 않다.

한발 더 나아가서 “그러게 왜 엄마는 맨날 잔소리를 할까? 아들 이거 진짜 어떻게 고치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 아이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아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자신이 싸움을 걸었는데, 오히려 부모는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싸움 걸기를 포기한다. 싸움을 통해 나쁜 감정을 풀고 싶었는데, 그 목적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망한 아이는 “몰라. 에이.” 하면서 들어가겠지만 이때쯤이면 내면의 극단적인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기 마련이다.

아이의 부모와 싸우려 든다

이쯤 되면 물어오는 부모가 있다. ‘부모가 무슨 죄라고 저런 것을 다 받아줘야 하나요?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은 말이다. 부모가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받아주지 말고 싸워도 좋다. 하지만 아이와 싸운다고 아이의 버릇을 고치지는 못한다. 강하게 나가면 그 순간 이긴 듯 싶지만 또 다시 반복된다. 더 강하게 나가면 아이가 자신의 마음에서 부모를 내보낸다. 그러면 부모-자식 관계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하게 된다.

아이의 부모와 싸우고 싶어 한다. 싸워서 기분도 풀고, 내면의

독립 욕구도 충족시키고, 힘을 기르려 한다. 자기가 헤쳐 나가야 할 세상이나 운명과는 직접 싸우기는 너무나 어렵다. 실체도 안 보이고 두렵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와 싸우려 든다. 그런 아이의 의도에 말려들면 힘들어지는 사람은 부모다. 아이의 거친 행동에 기분이 나빠졌다면 기분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맛난 차를 우려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몰입할만한 드라마를 본다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평온한 기분으로 아이를 만나야 한다.

물론 모든 싸움이 피해야 하는 싸움은 아니다. 부모와 아이의 의견차가 분명해서 벌어진 싸움이라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때도 막무가내로 싸움을 해선 안 된다. 무릇 싸움의 승패는 이미 싸우기 전에 결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부모는 아이를 이겨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서서 정말 이길 수 있는지 가능해야 한다. 만약 이길 수 없다면 싸움 필요가 없다. 흔쾌히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훗날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된다. 아이가 이기는 것이 알리고, 내가 지는 것이 분해서 한 마디 던져봐야 결국은 부모 손해다. 권위만 떨어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스스로 후회하게 된다. 차라리 네가 결정한 대로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이야기해 보자고 정리하는 편이 낫다.

정리해보자. 우선 아이가 걸어오는 자잘한 싸움은 피하자.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불쾌하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은 싸움을 피한 뒤에 하는 편이 낫다. 말꼬리를 잡으려는 아이에게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우선 무엇이든 불쾌한 기분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기분을 풀고 부모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자.

혹시 중요한 의견 대립을 둘러싼 싸움이라면 그때는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지 먼저 가능해 보자. 이길 수 없을 때나, 꼭 이길 필요가 없을 때는 기분 좋게 아이의 손을 들어준다. 부모가 아이와 싸워야 할 때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을 때다. 사실 그런 경우란 생각보다 흔치 않다. 그리고 흔치 않은 싸움이기때 이 때 부모가 이길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

소통을 위한 비밀병기

학생과 학부모 또는 선생님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통이 잘 되면 교육적 효과도 그만큼 더 커지겠죠. 최근에는 SNS 등의 발달로 다양한 ‘스마트 소통’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혹은 선생님과 학부모 간 이색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반은 매일 ‘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시작에 앞서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사랑스런 시 한편을 읽어주고, 한 명 한 명 눈을 맞춰 “선생님은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이 사랑을 듣고 느끼는 아이들이 이제는 저에게도 고백해 줍니다.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라고. 사랑이 가장 큰 소통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보람(30) / 교사

“교사와 학생이 집단으로 소통할 경우 활발한 아이들 중심으로 피상적 상담이 될 수 있겠지요.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1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점심 후 운동장을 돌며 산책형 1인 면담**을 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통 아이디어 같네요.”

이은영(52) / 학부모

“**학급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저희가 직접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기도 해요. 저희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세세하게 다 볼 수 있고, 선생님께서 쓰신 글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카페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학교 밖에서도 저와 친구들, 선생님을 이어준다고 생각해요.”



박유안(17) / 동산고 1학년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감을 쌓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모바일 커뮤니티 **학급밴드를 활용**해 아이들의 **학교 활동사진과 몇 마디의 소개말**을 올리다 보면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서로가 더 편하게 소통하면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신뢰감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학급밴드를 관리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매일 저녁 아이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힘이 나죠.”

여선영(42) /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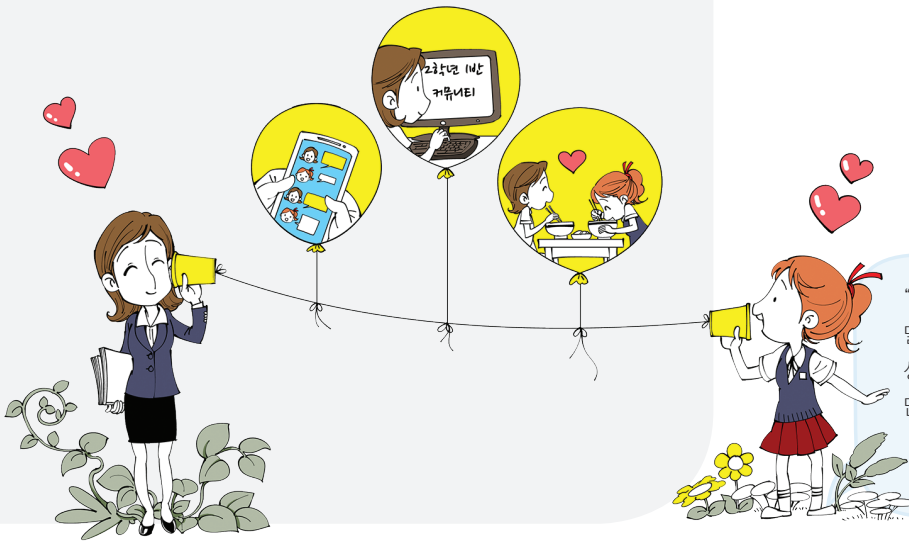
“저희 학급 카페에 저와 학생들의 글과 사진을 탑재하고 있고, **‘17년 동안의 삶’을 표현한 에세이 쓰기**를 하고 상담을 진행했어요. 시험 후에 학생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학부모님들께는 학생 관련 내용을 수시로 문자드리고 있습니다. 학급 전체 학생들과 단합대회도 하고, 단체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제자들과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요.”

김은하(46) / 동산고 1-2반 담임교사

“여러 성향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생일 날 함께 외식하기’**를 통한 내면의 고민을 들어주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대일 소통과 **‘학급회의 때 현재 안고 있는 자신의 고민 발표하기(담임교사도 동참)’**를 통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다자 간 소통 등을 통해 학생들과 진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우심(46) / 교사



“선생님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얘기할 때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선생님과 더욱 친해져서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소연(10) /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알림장뿐만 아니라 SNS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는 전달해야 할 소식을 학부모에게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양방향으로 즉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로 들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SNS는 적절히 활용할 경우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 외에도 학부모와의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협(33) / 교사

“활동량이 많은 교과이기에 학생들과 소통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담임업무도 많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고민하던 중, 별도의 SNS 담당 학생을 정하여 페이스북 학급 페이지와 카카오톡 그룹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정보도 실시간으로 올리고 평소 어려운 고민거리도 채팅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최지상(32) / 체육교사

“소통이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듯이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가 다 같이 일주일에 한 학생씩 주인공으로 정해 그 아이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종일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사진을 찍다 보면 그 학생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학생들만이 아닌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모님까지 서로에게 활용한다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강란(42) / 학부모

“교생 실습하면서 하루 2회 쉬는 시간을 활용해 매점미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 시간 진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 두 번만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남학생 고등학교이다 보니 매점에서 간식을 나눠 먹는다는 점이 저만의 친목과 소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병진(28) / 연세대 교육대학원생

“이번에 퇴임하신 선생님과 책을 바꿔가며 읽었어요. 선생님이 책을 전해주시실 때, 항상 메모장에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낙서 비슷하게 적으신 거 같아요. 처음엔 재미있게 보았는데 나중에 메모장이 반 친구들의 생각을 읽는 장이 된 것 같아요.”

문희모(17) / 광희중 학생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은 교사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학생, 학부모와 래포를 형성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인데요. 저는 매주 학생들의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일주일동안 학생들과 있었던 즐거운 일, 감동적인 일, 가정에서 학생들 지도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학부모님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윤창희(29) / 교사

“아이 담임선생님께서 클래스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선생님,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 알림장 등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앱을 통한 스마트 소통은 선생님과 학부모의 신뢰감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영(41) / 학부모



일상을 벗어나는 쉬운 길

오이도

지하철 4호선은 오이도로 향한다.
 빨간 등대와 하얀 나무가 있는 곳
 갯벌에 발을 담그면 얼마간의 조개를 주울 수 있는 곳
 바다를 보고 앉아 일렁이는 도시의 불빛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선물 같은 오이도가 가만가만 말을 건다.
 궤도 밖으로 나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01

02



03



04



05

- 01 빨강등대는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의 하나로 2005년에 만들어진 해양관광 기반시설이다. 오이도의 대표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 02 바닷가에는 칼국수, 조개찜 등을 파는 가게들이 성업 중이다.
- 03 바닷길을 따라 옛 시인의 길이 조성돼 있다. '자연 그대로를 느끼는 산책로'를 표방하는 이 길은 느릿하게 걸으면서 아름다운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04 05 선착장을 따라 어시장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 06 생명의 나무 전망대에서 보면 오이도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편 송도국제도시의 불빛이 야경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06



“학생부에 ‘자유학기활동’ 알차게 남기세요”

교육부, 학생부 서식 및 나이스 기능 개선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자유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나이스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그동안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도’를 공란으로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도’, ‘원점수/과목평균’란에는 ‘P’를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이 이수한 꿈·끼 관련 활동을 통합 기재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활동’ 기재란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자유학기를 도입한 학교에서는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예술·체육활동은 ‘체육·예술교과’에 주제선택활동은 ‘교양교과’에 나누어 기재해 왔던 것을 이번에 나이스 상에서 편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자유학기활동’란에 영역별(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수시로 기록·저장하고 파일(엑셀 등) 다운로드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기록하여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었다. 또한 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내용이 자유학기제 교육활동평가표(성적표)와 연동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교육활동평가표(성적표) 양식을 수정하여 과목별 성취기준, 활동 내역, 노력정도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 특히 자유학기 운영이 학교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영역과 영역 성취기준은 학교에서 선택



01 올해 3년째 자유학기를 운영 중인 대전외삼중학교. 학생들의 자유학기 활동은 새롭게 마련된 학생부 ‘자유학기활동란’에 기재될 예정이다.

02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나이스의 기능이 일부 개선되었다. 나이스 홈페이지 화면

적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14.1.16)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및 나이스의 개선을 위해 현장 교원을 비롯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왔다. 03

NEWS BRIEFING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최근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학업중단 사전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충족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4.5.28. 제정) 시행에 앞서 보호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매년 6만 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 부처 차원의 정책 연계와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전예방을 통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에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로 선정하여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교원연수, 전문가 컨설팅 등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예체능 활동, 직업 체험 등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률 등을 감안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도 학교 내 대안교실(1,284개교)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238개 지정 시설)을 통해 맞춤 대안교육도 강화한다.

5대 중점 추진과제, 18개 세부 추진과제

1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강화
- 가족 및 또래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 강화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 실태조사 등을 통한 충족한 지원기반 마련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제공 및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연계 강화

3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환류시스템 마련
- 범부처-지역-민간 협력체제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학업형) 학력취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 (직업형)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및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 (집중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 동기부여

5 충족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위기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 지원
- 긍정적 사고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대학교 학교행사 안전관리대책 마련



교육부는 대학교에서 MT(수련회) 등 대학생 연수시 발생하는 음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학교 MT 등 학교행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대학생의 지나친 음주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 대학 총학생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우선, 각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체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행사의 경우,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안전 매뉴얼을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되, 학생주관의 행사는 학교에서 구급낭(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안전책임자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였다.

학점은행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 추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사관리가 더욱 엄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기관에도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9월경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에서는 수업계획서 등 학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수업운영 및 성적처리 등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 등을 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부실·부정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기간, 정보공시의 횟수, 범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체험형 밥상머리교육으로 자녀의 학업과 인성이 쏙쏙

전국의 136개 초등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부와 풀무원은 건강한 밥상,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136개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식사예절을 현대화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인성을 배우는 교육방법이다. 지난 5월 7일 서울 대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상반기(5.7~7.16)와 하반기(9.1~11.25)로 나눠 136회에 걸쳐 3,87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음식의 문화·역사와 밥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요리를 맛보며 어떤 밥상 풍경을 바라는지, 그것을 위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4회 스승의 날 기념식 열려



교육부는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는 모범교원을 선발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교원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교육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본연의 업무에 묵묵히 임하고 있는 46만 교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스승의 날을 맞아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우수 교원 5,724명을 선발하여 정부포상도 실시하였다.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교육부는 5월 18일~22일까지 5일간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대학, 소속기관·단체 등 2만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년보다 2일 확대한 5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민 체감형 훈련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설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기숙사 화재대응 훈련과 특수학교·유아 대상 대피훈련, 국가급 중요자료 보호 훈련 및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훈련 등 안전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60여 곳에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5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입전형의 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의 자율적 전형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65개교에 6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학생부 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고등학교에서 준비가 어려운 대학별 고사 및 특기자 전형은 감소하는 등 대입전형 체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대학의 전형운영 및 전형개선을 위한 노력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직무발명을 통해 기술이전과 취업을 동시에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 사업(IP Meister Program)'의 제5기 참가자를 오는 6월 18일까지 모집한다.

IP Meister Program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기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으로 창출되어, 기업과 학생 간의 기술이전 및 우수인재 채용 등을 통해 개인과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고교단계의 대표적 산학협력 모델이다. IP Meister Program은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참가팀(45팀)을 선발하고, 오프라인 소양캠프 및 IP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테마과제를 출제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여 기업의 역할 강화와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교육부는 처음으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의 대학에 보급하였다.

부산대는 입학원서를 제출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파악하여 별도 고사장을 배정하고 일반 수험생 대비 1.5~2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로 인해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있다. 송실대는 교내 모든 구역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건물별 출입구에 턱을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학생식당·매점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대폭 정비하였다. 사례집에는 이밖에도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가 우수한 대학 22개 곳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6년부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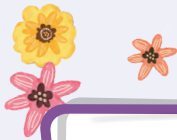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실제 효과를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우수한 지방인재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취업난을 겪는 지방대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구직·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한 교육

“집에서 무료로 받아 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풍부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에서는 책에 실지 못한 원고 전문과 지역 교육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15년 6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편집인 김재금 대변인
기획총괄 이재력 홍보담당관
곽은우 교육연구사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편집장 황자경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 『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안내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 → 구독신청
→ 개인(모니터단) 신청하기
→ 학교단위 신청하기
→ 교육모임 신청하기

오자만담

이 시대에 SNS란 ○○○○○이다.

우린, 급변하는 시대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SNS란 어떤 의미인지 재치를 담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에 응모하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오자만담 당첨자

5월호 주제 : 나에게 스승이란 ○○○○○(한) 존재다.
이주현(민고따르는) / **조예찬**(마중물같은) / **조 석**(참나를만든) / **서명주**(많이뉘고픈) / **주영미**(신념키워준)님 축하드립니다.

“전화 한번으로 기업 애로 해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월-금, 09:00~18:00)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기업마당**  www.1357.go.kr

자금 상담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의 정책자금 및 기보/신보 보증관련 상담

기술개발(R&D) 상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신청부터 사업비 사용
승인까지 상담

창업 상담

법인설립절차, 공장설립, 창업보육센터 입주 문의,
창업지원 사업 신청 등 창업관련 절차/법·제도/지원
상담

소상공인 상담

소기업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환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
시장 지원사업 상담

판로/수출 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전시회, FTA 활용 등 수출지원 상담

인력 상담

산업기능요원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력지원사업 상담



노벨상수상의 영광~



미래의 치안은
내가 책임진다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



우느 가수다~



플러쳐상은 내품안에~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피카소는 꿈꾸며~



미래의 마스터 셰프



아름사람들은 저에게 모세요~

체험·참여중심의 교실수업 🔍

다양한 토론과 실습을 통해 창의성·인성·사회성 등 미래지향적 역량을 키워줍니다.

진로탐색활동 👤

시험에서 벗어나 생생한 경험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꿈을 키워줍니다

동아리 활동 👥

관심 있는 동아리에 참여해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활동 🎭

연기,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선택 프로그램 활동 📖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합니다